

제364회국회  
(정기회)

# 교육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8년9월19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 채택의 건
2.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3.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 |   |   |
|---|---|
| 1.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 채택의 건 .....            | 1 |
| 2.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       | 2 |
| 3.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 2 |
|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인사청문회 ..... | 2 |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정감사계획, 자료 요구의 건 등을 먼저 의결한 후에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29까지 총 19일간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감사일은 8일이고, 현장시찰이 하루 있

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63개 기관으로 이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개 기관입니다.

10월 11일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교육부의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5일·17일·19일 3일간 17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일 현장시찰을 실시하고, 23일과 25일에는 대학과 대학병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29일에는 교육분야의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감사 실시 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위원장이 각 당 간사

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기관 및 관계인 등에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출요구서는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각 의원실별로 행정실에 접수된 서류 등 제출요구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054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각 의원실의 요구서는 이미 피감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서류 등 제출기한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정감사 수감일 7일 전까지로 지정하니 각 기관은 USB 등의 형태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준비의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 종료 이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대상기관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등 제출요구는 오늘 의결한 자료 요구와 동일하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이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출석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의 경우 통상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기관증인과 피감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필요하여 출석요구하는 일반증인 등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증인 등의 경우는 아직 간사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일반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처 및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으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 기관장 등 1인 내지 3인 정도를 기준으로 사전에 소관부처의 추천과 간사협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 인사 등에 따른 기관증인의 변경·철회 등은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인사청문회**

(10시23분)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현행 법률상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공직의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중요한 사무를 관장할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자질 및 도덕성·준법성·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

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국민들께서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후보자에게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공직후보자 유은혜

**○위원장 이찬열** 다음은 유은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은혜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해 왔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산적한 교육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름지기 국가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는 변화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발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은 우리의 미래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맞추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사회의 혁신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입시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과도한 성적 경쟁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대물림되면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줄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모든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민주적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2015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체계적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학습공간이자 생활공간인 학교를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이자 혁신성장의 중심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지식창출을 위한 학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계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등 직업교육을 혁신해 나가고 지자체·대학·산업이 협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실질적 고졸 취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생들의 진로를 다변화하겠습니다.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창업·결혼·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교육정책·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부처 연계정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육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안정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정책참여 기회는 확대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부부터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후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후보자님 응원을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도 여기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 진행 중이므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 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3분 이내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나중에 한 바퀴 돌고 하셔도 되니까, 왜냐하면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오전에는 다 한 번씩 말씀하실, 질문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자료 제출 관련해서……

○위원장 이찬열 예.

○곽상도 위원 KBS에서 유은혜 위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오피스텔 빌려서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로 사용했고 사무실 임차료는 시·도의원 5명이 분담해서 1500만 원 안팎을 지불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역 선관위에 확인을 하니까 지역위원장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제출을 못 한다고 합니다. 자료 보관하고 있는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동의만 하면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후보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자 쪽 관계자가 언론사에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선관위에 미리 문의하니까 합동사무실 운영도 가능하고 나눠서 내면 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회신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언론에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선관위에서 면으로 질의한 적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 거짓 해명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거짓 해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후보자가 과거에 봤던, 이것 후보자가 맞는지 한번 보시지요. 김상곤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의 발언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위원장 이찬열 잠깐만요. 이것은……

○박용진 위원 음성 나가고 이런 것들은 사전협의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곽상도 위원 한번 계속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 이찬열 제가 지극히 중립적으로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 시간에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만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밀도 끝도 없습니다. 다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자료 요청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자료 요청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죄송한데 음성 나가고 이런 것은 간사 간에 합의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찬열 중단됐지요? 하여튼 중단시키세요.

○곽상도 위원 후보자가 김상곤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자료 제출을 역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본인이 지적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2014년 6월 13일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안 제출 이후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 임명할 수 있는데 20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원내대변인 시절에 지적을 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찬열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분이 과거에 국회에서 이런 얘기 하셨던 분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찬열 곽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딱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분,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우석대 겸임 전임강사 및 겸임 조교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미제출한 겸임 전임강사 및 겸임 조교수에 대한 처우규정, 겸임 전임강사 및 조교수 재직 시 연구실적, 유은혜 후보자의 강의명과 커리큘럼, 유은혜 후보자의 강의에 대한 강의평가서, 우석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금액 일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유은혜 후보자의 겸임 전임강사 및 겸임 조교수 계약서 사본 그리고 휴직 여부 그리고 급여증명서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증명 그리고 우석대 재직 시절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이 내용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겸직을 했느냐의 여부 및 의원으로서 기타 소득을 올렸느냐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세한 소명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열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지적하시는데요. 유은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요구된 자료가 총 755건이고요. 이중 692건이 제출되어서 자료 요구 건수 대비 제출건수 비율은 91.65%입니다. 황우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률이 얼마였을까요? 830건 중에서 무려 323건을 제출하지 않아서 제출률이 61.08%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황우여 후보자 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요 두 번인가 장녀, 장남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조차 제출하지 않았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내역, 후보자와 차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의 취득등록세와 과태료 납부내역과 같이 아주 기초적인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위원장 이찬열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사청문회장입니다. 칭찬할 것은 나중에 하세요.

○박경미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이찬열 자료요청을 하셔야지, 잘하고 잘된 점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경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이전에 기록이 어땠는지 잠시 소개해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이찬열 자료요청만 해 주십시오.

○박경미 위원 예, 이번에 유은혜 후보의 경우에 미제출 자료가 63건인데요, 그 내역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자녀의 학생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는 성적과 같이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긴 것이어서 제출하기가 힘들다는 점 모두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로 되셨을 때 자녀의 학생생활기록부 이런 것 제출하시겠습니까? 좀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 제가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지금 하신 발언은 꼭 유 후보자님의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몇 개를 제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출한 것 중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사실은 드릴 수 없다,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한 것을 한번 다시 걸러보면 몇 %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밖에서 의원 봐주기라고 하는 의혹, 국회의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현직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청문회를 대충대충 한다라고 하는 비판은 여야 막론하고, 다 없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남북회담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이 청문회가 대충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비난도 있는 상황에서 대변인도 하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신 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위원장 이찬열 김현아 위원님, 위원님들 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발언도 제지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열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게 지금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이쪽 발언 제지했으면 저쪽 발언도 제지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찬열 아니, 손 좀 들고 얘기하세요.

○김현아 위원 저한테 아직 시간 주어졌습니다. 저도 얘기 좀 하고 끝내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열 아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순수하게 위원장이 요청드리는 자료 제출 요구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토론은 내 시간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새도록 하신다고 그러면 기회,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무제한으로.

자료 요청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김현아 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드린 요청 자료 중에 제출 거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금 납부 실적이고요, 후보자 직계존비속 경력사항인데 여기에 자녀들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는 배우자하고 다른 준비속에 대해서는 내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경력사항도 지금 빠져 있고요. 저희가 입수한 것으로는 지금 배우자가 여기 재산신고 되어 있는 것 이후에 취업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확인하려면 이런 것들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숨길 게 없다면, 개인정보는 본인만 동의하시면 다 제출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숨길 게 없다면 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티면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청문회 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만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한표 간사님.

○김한표 위원 대한민국 백년지계를 맡으실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사회부총리에 대한 자격검증 또 인사검증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항간에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시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면 자료 제출은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번에 유은혜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다른 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유은혜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 가히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이 안 될 것으로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료를 보면 여당 위원님들 자료는 대부분 많이 하셨는데, 야당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는 거의 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가 전부입니다, 대부분이.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의혹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 넘어가고 오늘만 피하고 이 시간만 피한다

고 하면 더더군다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느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파묻혀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자료 제출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이찬열 저는 기본적으로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시면 비교적 따라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 저는 간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좀 더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별도로 제출이 안 됩니까?

○김한표 위원 아니,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것은 자료 제출이……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조승래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승래 위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 보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 항목 중에서 실제로 개별 위원들에게 전달된 자료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경미 위원이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습니까마는 그러면 행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최근에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건과 최근에 김상곤 장관 그다음에 이준식 장관, 황우여 장관 한 세 분의 장관들하고 비교해서 통계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 그 이하의 자료 제출인지를 통계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혹시 후보자께서 당일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아마 정리를 해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음성 사용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주질의 할 때도 그 음성 사용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빨리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위원장님이 뭔가 판단을 해 주셔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물을 정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통상적으로……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열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이 시간이 자료 제출 등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얘기가 잠깐 됐었지만 오늘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들이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검증 사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언론의 환경이 그렇고, 그리고 국회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장관이 단순히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부총리가 두 분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이렇게 해서 두 분이고, 경제 분야를 제외한 제 사회 분야에 대한 모든 정책의 실무를 사실상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 정책들이 기존의 정책들과 상충하거나 새롭게 시도해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후보자, 아무리 국회의 관행이 여야 간 간사 협의 또 합의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저는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국회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여타의 부처도 아닌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이런 막중한 자리를 오늘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다른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그런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자신들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후보자를 위해서 이런 국가적

이벤트를 활용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쉽게 납득하고 동의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사 분들에게서 의사 절차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박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용진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한 분당 3분씩, 한 번만 쓰세요. 이거 의사진행발언 갖고 계속 두 번 세 번씩 하면 의사진행발언만 해야지.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이 여유 있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찬열 아니, 질의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헛수를.

○곽상도 위원 아니, 질의에 들어가자 말자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다 위법이다 뭐……

○위원장 이찬열 일단 박용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용진 위원 정견 발표회장은 아니잖아요. 자료 제출하고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어 있는 위원장님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국회에서 별로 국민들 보기 안 좋은 게 자료 제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질의 때 주질의 때 해야 될 얘기들 다 하고요, 심지어는 정견 발표까지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교육적으로라도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요청서가 오면 그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인사청문회 기간 피해 가지고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잡혀 있는 국가적 대사들을 죽죽죽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간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잡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막상 청문회에서 자격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증해야 될 시간에 이제 와서 그걸 타박하고 따질 수 있는 상황



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여기가 지금 본마당이 아닙니다. 자료 제출 부족한 것 있으면 속히 후보자에게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시고 또 필요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사들 중심으로 합의하실 것 있으면 빨리 합의하신 뒤에……

국민들이 기다리십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은 그것은 그거고요, 이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회가 정상회담 잡혀 있다고 그래서 소홀하게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정책 검증하고 후보자 검증해야 될 것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자료 제출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시면서…… 내실 있는 검증 과정 전체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막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서로 합의할 것 합의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어나 또 다른 데서 봤던 것처럼 파행 만들려고 지금 사전에 밀돌 까시는 것 아닐 거라고 저 믿어요. 제대로 된 검증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열** 지금 말씀 중에, 이찬열 위원장으로 있는 한 파행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KBS 2TV에서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문종 위원님.

○**홍문종 위원** 여당 위원님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파행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께서 아마 자료 제출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는 그 당일까지는, 의결 당시에는 0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저희도 보면 개인적으로 준다고 그러고 지금 안 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원하는 답변들이 안 돌아온 것이 많이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장관께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남북한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남북정상회담에 가려져서, 국민들이 어떤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날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잡았겠습니다만 오늘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분석할 시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청문회 일정을 뒤로 미루자고 저희가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도대체 자료를 분석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서, 자료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안 온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뒤로 미뤄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하루이틀 정도 뒤로 미룬다고 그래서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 위원**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다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한 것은 무슨 여당이 일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서, 소위 말해서 쟁점을 피해 가려고 잡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인사청문회 날짜를 19일 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청문회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하자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 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으나 실제로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원내지도부와 이쪽에서 19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몰타기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밀어붙이기 위해 잡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고 저희들은 정상회담 일정 기간을 피해서 청문회를 잡자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것인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사유를 조금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 청문회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이미 어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청문회가 이미 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 여야 위원들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다음에 오세정 간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세정 위원** 제가 알기로 유은혜 의원께서 지난 19대하고 20대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10건을 하셨는데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내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출하겠다 그리고 안 온 자료도 상당히 많고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 것도 많고 나중에 온 자료 보면 빨리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었던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유은혜 후보자님의 원래 소신하고 너무 다르게 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료가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고 늦게 온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국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날짜를 늦춰가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필요한 자료들은 지금 더 요구를 하시고 일단 청문회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 의견 좀……

○**위원장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은 조승래 간사님이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 청문요구서가 회부된 것은 4일입니다. 4일로부터 15일 내로 청문회를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법적기간은 18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검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든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4일 날 회부되었고 그래서 좀 빨리, 대정부질문 전인 12일 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 간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우리 위원장님, 오세정 간사님 그리고 김한표 간사님께도 ‘그러면 14일이 어떻겠습니까, 대정부질문 있지만?’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바른미래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했어요, 14일 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19일은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이 있으니 그날은 보도라든지 언론의 관심사가 혹시 줄어들 수 있으니 14일 날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 전체회의에서 19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께서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날 여러 번 정회를 하면서 19일로 잡았습니다. 그 잡은 날이 바로 7일입니다.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있다는 발표는 6일 날 있었습니다. 6일 날 있었고 7일 날 전체회의에서 정상회담 있는 것 다 알면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요구에 의해서 잡았는데 오늘 와서 이런 상황이니 연기하자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바로 직전에 했던 이야기까지 잊어버리신 건지. 저희가 보기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은혜 장관후보자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벌써 언론에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유은혜 장관후보자 불패 신화 없을 거야’라고 해놓고 오늘 와서 마치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그런 양이라고 하셔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 이찬열 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 연기까지 보도될 텐데 우리 이거 날짜 14일로 합시다’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이야기 다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 91.65% 왔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찬열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그거 보실 시간, 틈틈이 보세요. 보시고 진행해 나가시지요.

○위원장 이찬열 중요한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끝나고 질문 시간을 진행을 하시자고요. 그 대신 7분 시간은 내가 정확히 드리는데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오늘 밤이 새도록 원하시면 끝까지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해영 위원님하고……

김한표 간사님은 두 번째, 간사님이라고 이렇게 막 하셔도 되나요?

○곽상도 위원 저기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웃음소리)

그러면 먼저 김해영 위원님 하시고 김한표 간사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십시오.

○김해영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처음입니다.

빨리 저희가 본격적인, 우리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정책을 잘 수행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빨리 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를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적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매우 축소하는 발언이고요 남북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매우 등한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김한표 간사님.

○김한표 위원 앞서 말씀하신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의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9일 하자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까마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분석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후보자가 향간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탈법,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세간의 여론을 해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다시 또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14일 했으면 자료 제출도, 지금 19일 돼도 자료 제출이 안 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가 전부 다, 거의 이 정도는 자료 제출이 안 된 상태, 추후에 자료 제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4일로 우리가 강행을 했다고 하면 혹여 우리가 카메라는 좀 더 받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에게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는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께 공급하신 내용을 알려 드리고 제대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9일로 잡았는데 국가적인 그런 일이 있어서 겹쳐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부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렸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답변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될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 청문회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지금 파행 얘기를, 저희 당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입에서 자꾸 파행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공론의 장에서 다 털고 가자는 건데, 그렇게 오해 안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기 미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후보자에게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답을 주시지요. 이만큼 많은 자료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이찬열 위원장도 말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제출 자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이찬열 이제 진짜로입니다, 진짜로.

김현아 위원님 마지막……

○김현아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위원장 이찬열 자료 요청 간단하게…… 아까는 안 하시고 지금 하신다고.

○서영교 위원 한 번씩만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열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자료 요청만 하면 됩니다.

○서영교 위원 벌써 몇 번째 하시고.

○위원장 이찬열 오죽한 제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오죽한 저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빨리빨리 한 번씩만 하시지요.

○위원장 이찬열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중에 90%를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 통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그 90%라는 게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 거지요? 후보자님이 그걸 정리하셔서 여당 위원님들한테만 드리셨나요? 저희는 몇 % 들어왔는지 모르는데요?

○서영교 위원 자료를 요구하세요.

○김현아 위원 개별적으로 자기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몇 % 들어왔는지는 저희는 집계할 수 있는데 지금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자료 중에서 90%를 제출했다라는 것의 근거는 도대체 뭐니까? 저는 질문드리고 싶어요.

○박찬대 위원 그게 자료 제출 요구는 아니잖아

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현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찬열 김현아 위원님, 그것은……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실에서 통계를 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통계를 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그건 따로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 이찬열 제가 이래서, 제가 약속을 지켜 드려야 되는데……

○김현아 위원 그런데요 이상하잖아요. 행정실에서 통계를 낸 게 아닌데 여당 위원님들은 그 90%라는 걸 어떻게 산정하셨냐고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얼마큼 줬는지를 정보로 다 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찬열 아니, 그것은 김현아 위원님, 지금 여기서 얘기하셔 봐야 의미가 없는 얘기고.

○서영교 위원 우리가 보니까 90% 다 제출했구먼, 뭘.

○조승래 위원 교육부에 자료 요구……

○위원장 이찬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자꾸들 그러시지 말고.

○서영교 위원 보니까 답변이 다 있으니까 그러지.

○김현아 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 분명합니다. 기록 남겨 주세요.

본인들이 제출하셔서 본인들이 받은 자료가 90%다 이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후보자가 다 제출한 게 90%다 이것 팩트 체크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 그것 깨끗이 하고 빨리 청문회…… 아이, 정말 너무들 하네.

○김현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간사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

○박용진 위원 검증하자고, 검증, 빨리.

○김현아 위원 저 말 좀 하게 해 주세요.

○곽상도 위원 자료가 나와야 검증을 하지요. 자료 제출 없이 검증을 해요?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명, 한 명 하고 정리하시자니까 자꾸 이렇게……

○서영교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언론에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니까?

○위원장 이찬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 실수 인정합니다.

자, 이제 끝내세요.

○**김현아 위원** 저 마무리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벌써 몇 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얘기하면 됩니까?

○**김현아 위원** 아니, 지금 마무리할 거잖아요.

○**위원장 이찬열** 김현아 위원님, 그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서영교 위원** 도대체 몇 번을 하시고.

○**박용진 위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다 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위원장 이찬열** 가만히들 계세요, 여당 위원님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제가 요청하는 이 질문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찬열** 김현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영교 위원** 자녀 학생생활기록부 달라고 그러면서 그 요구를 하십니까?

○**김현아 위원**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녀 학생생활기록부를 요구하고 그게 꼭 받고 싶으신 겁니까?

○**김현아 위원** 제가 요청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찬열** 아니, 그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전희경 위원** 발언 요청해서 하십시오. 발언 요청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가야 발언 요청을 하지요.

제가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잠깐, 잠깐. 이러면……

○**서영교 위원** 제가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두 번 했으니까 저 두 번 하게 발언 요청합니다.

○**김현아 위원** 저 마치면 하세요, 마치면.

○**위원장 이찬열** 자, 그만하시고. 김현아 위원님도 거기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중에 몇 %를 답변하셨는지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 제출에 보면 개인정보라서

제공할 수 없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추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다 되셨지요?

이제 자료 제출 요구 내지는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기됐던 자료, 시·도의원과 공동사무실 관련된 광상도 위원님의 자료 요청 내용 그다음에……

○**광상도 위원** 자료 이만큼 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찬열** 일단 아까 얘기하신 것 하고.

그다음에 전희경 위원님의 우석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그다음에 아까 누가 얘기하셨나, 배우자 세금 납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서 갖고 청문회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광상도 위원**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내는 것도 같이 좀 제출……

○**위원장 이찬열** 그러세요. 서면도 이미 다 그건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김한표 위원**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위원장 이찬열** 야당 간사님이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확인해서 하고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회방송과 KBS 제2TV에서 생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시다. 따라서 주질의 시간 7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충질의, 추가질의 또 재질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동료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주질의 시간만큼은 딱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광상도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위원** 발언할 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한겨레 기사가 2건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이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그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

된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해서 정말 법 위반한 후보자가 교육부 부총리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검증하자는 겁니다. 청원도 지금 8만 명 가깝게 이어지고 사설들도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다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나서서 그 언론 기사가 잘못됐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대에 논문은 제출하지 않고 추가 학점 6학점 따서 석사 학위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곽상도 위원 우석대학교의 이 석사학위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 부대변인 경력, 민주당 고양 일산동구지역위원장 경력으로 해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다고 해서 우석대 겸임교수 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겸임강사입니다.

○곽상도 위원 겸임강사, 당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혼동이 되는데 그냥 한 용어로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겸임교수 구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공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때 당시 행정학과 교수님들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 자리 있었는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추천을 받아서 제가……

○곽상도 위원 아니, 추천을 받아도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응모를 하든지 서류를 만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곽상도 위원 겸임교수 자리 얻으려고 갖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잘 알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는 교수 추천으로 이 자리 참 수월하게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자리가 하나 날아온 거니까 참 쉽게 얻은 거잖아요.

후보자, 우석대 이사장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상도 위원 우석대 이사장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서창훈 이사장님 말씀하십니까?

○곽상도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분이 겸임교수 발령내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학교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사장 서창훈 씨하고 인재근 의원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 만나러 동행하신 적도 있지요, 이 무렵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웅산 수치 여사 만나러 갔던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라고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때가 2012년 11월 달인데 조교수 시절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우석대 강의를 2011년 2학기에 한 번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 4월에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학교 측에 전달을 해서 저는 우석대 강의는 2011년 2학기에 한 번만 하고 끝난 겁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학교에 한 학기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조치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곽상도 위원 그런데 우석대 겸임교수 자리 얻기 전에 후보자께서 일산 동구 지역위원장으로 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곽상도 위원 그때 2012년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돼 있었고 실제로 출마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총선 홍보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겸임교수 했다는 이게, 겸임·전임강사 했다는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이것 맞지요? 경력으로 겸임·전임강사 했다는 이런 걸 경력을 기재했던데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경력이 있는 것을 사실대로 기재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게 선거 대비해서 경력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선거는 그 전의 경력으로도 충분히 출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학계에 진출하려는 전국의 겸임교수나 지방생들은 이것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전에도 강의는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것은 제가 일부러 경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수업을 통해서……

○곽상도 위원 그 평가는 여기 보고 있는 시청자나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석대에서 나온 경력증명서를 보면 후보자께서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1년 1개월간 겸임조교수 했다고 이렇게 경력증명서가 돼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봤더니 우석대에서는 일괄적으로 겸임강사에 대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바뀐 것은 그 사이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후보자가 안 했지 않습니까, 조교수를?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조교수가요, 위원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등교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겸임강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교수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 다른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주제를 돌리지 마세요. 경력증명서에 있는 겸임조교수를 안 하지 않았느냐 그걸 묻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2년이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경력증명서 상에는 그렇게 발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계약됐기 때문에 발급됐다, 실제로는 안 했는데 계약됐기 때문에 발급했다, 후보자께서 2012년 총선 때는 겸임강사 했던 경력을 기재했습니다마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2011년 2학기 때는 겸임강사를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곽상도 위원 잠깐,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기 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보면 시간강사 했던 경력이 없습니다, 조교수 했던 경력. 뿐만 아니라 본인, 국회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인물 정보에도 보면 이 경력이 없습니다. 이게 본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경력에서 다 뺐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무 문제 없이 절차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1차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도 위원 청와대에서 낸 이력서에 보면 후보자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우석대 행정학과 전임·겸임강사, 조교수를 했다고 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학교에서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곽상도 위원님, 보충질의, 추가질의 때 좀 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선거에 허위경력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기재를 안 하고 이때는 기재를 했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허위경력 아닙니다, 위원님.

○곽상도 위원 아니, 조교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조교수를 했다는 경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열 아니, 잠깐만요.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여유 있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열 얘기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 계약을 할 때 우석대에서는 겸임강사 계약을 일괄적으로 2년 기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2011년 2학기 한 학기 강의를 했고요. 제가 2012년 총선 출마하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전달을 했고 강의를 하지 않으면 저에게 급여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강의를 안하는 것으로만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약상의 2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경력증명서에는 2년이라는 계약기간으로 발급됐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

(버저를 누름)

30초 전에, 이것 아마 국회에서 처음 쓰는 건지도, 30초 전에 이걸 제가 누르든 여기서 누르든 누가 누를 겁니다. 30초 전에 반드시 마무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부총리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또 여성 교육부 수장 후보도 23년 만인데요, 지명되신 후 오늘까지 야당의 과도한 흠집 내기 식 의혹 제기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또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 현안을 풀어 갈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위장전입이 1996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위장전입 관련 공직배제 기준시점이 2005년 7월이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교육 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후보자도 여러 차례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녀의 덕수초등학교 입학에 위해서 주소를 옮긴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

니다.

○박경미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돌아가신 저희 부친께서 덕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 사정을 좀 소상히 아는 편인데요.

장녀의 입학 시점인 97년 당시 덕수초의 1학년 학급당 학생수가 28.6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서울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37.1명이었고요, 이 덕수초가 유서가 깊은 명문 학교이기는 하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학생이 적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정원 미달 상태였기 때문에 후보자 장녀로 인해서 다른 학생의 덕수초 입학 기회 박탈은 없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장녀가 덕수초를 졸업한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졸업은 못했고요, 5학년 때 일산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렇지요, 2001년 일산으로 전학을 해서 중산초를 졸업을 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그 이후에는 계속 일산에서 학교를 다닌 것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하는 분이 자녀 위장전입의 그런 이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든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청문회 자리를 빌려서 대국민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장전입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미 위원 얼마 전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우리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붕괴사고가 있기 이틀 전인 9월 4일 상도유치원이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해서 찍은 사진 그리고 같은 곳에 대한 5월 31일 사진을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로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지상 1층 복도 벽입니다. 5월 31일과 9월 4일의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금이 간게 보이지요?

두 번째 사진은 외부 바닥인데요, 바닥 접합부



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역시 외부 바닥인데, 접합부 이격이 급격히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 유치원을 지탱하고 있던 외부 옹벽 부분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유치원과 학교들의 안전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다행히 교육부가 지난 12일부터 민관 합동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는 것 맞는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발견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전수조사가 끝나고 취합되고 나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기는 한데요—교육시설기본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교육시설기본법이에요, 이것은 아직 통과되지는 못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이게 제정법……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정법입니다.

○박경미 위원 제정법이고 지금 교육위에 계류 중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법이 만약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이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태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학교 주변의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 확보를 학교장이 요청하게 되면 그 지역의 단체장이 그것을 확실하게 의무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우려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공사장과 관련해서는 안전 조치를 기초단체장들이 요청에 의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놓은 법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한 안전 확보 그리고 또 인허가권자의 어떤 조치 의무화 이런 것을 규정한 법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통과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가 교문위에서 몇 년간 활동하셨던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6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박경미 위원 제가 의안정보시스템을 찾아보니까 19대 국회에 41개 법안 그리고 20대에는 48개의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교문위 소속인 만큼 아무래도 교육 관련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즉 성격을 보니까 학생 건강·안전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19대 때 통과된 제정법이지요, 교육환경보호법이에요. 이게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법은 19대 마지막에 통과되어서……

○박경미 위원 2016년부터 시행이 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이 법의 골자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법이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했던 예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학교 주변의 200m 반경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고요, 이것은 저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정법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얼마 전에 부산의 해운대초등학교에서 학교 주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학교 주변에 그런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판정을 받아서 그 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저에게 손 편지를

써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있으면 답변을 길게 하셔도 좋은데,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전에 땡 소리 합니다, 이것.

○**박용진 위원** 잘 들립니다.

박용진입니다.

후보자께요, 이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요, 여기 보니까 ‘정체불명 8500만 원’ 그리고 ‘유은혜 의혹’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를 보면 이것을 제기하신 의원님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검직금지 위반이고 고액연봉 수준의 특장비를 받았던 황제특장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후보자님 세비 외의 금액인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세비하고요…… 제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정체불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용진 위원** 제가 짧게 여쭙어 볼게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세비, 한 1억 정도의 세비플러스 특장 나갔던 금액 합치고 본인·가족 세액공제하고 남은 것을 지금 성실신고하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그런데 성실신고를 부실 검증해 가지고 아무나 걸러라 이렇게 하는 것에 관련해서 보도가 나간 것이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제가 이번 과정에서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또 하나요 그다음 기사인데요, 이것은 또 헤럴드경제에 나간 겁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가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 교

통위반 범칙금 10건 이렇게 언론보도 냅니다. 그리고 이 야당의원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일반인보다 더 학생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의원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찰청에 문의를 하니깐요 사실무근이라는 거예요. 유은혜 후보자가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한 것은 사실무근이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했으면 그 자료에 따로 명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이것도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사실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스쿨존 내에서 이것은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이쯤 되면 저는 마구잡이 정치공세 아니냐? 경찰에 한번 전화해 보면 되고 세무사한테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을 이렇게 언론에 일단 무턱대고 보도자료부터 내고 헐뜯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하나를 더 볼게요.

피감기관 사무실 갑질해서 입주했다고 하는 의혹 제기 관련인데요.

권익위에 이 관련해서 유권해석한 자료, 그 결의서를 보면 2016년 9월 28일 이전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 대상 아니고 그다음 것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또 ‘이테일리’라고 하는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오히려 이런 갑질을 지적한 자유한국당이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서, 저는 청문회 전반적으로 보면요 개별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 후보자 자질에 대한 검증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야당이 왜 불필요하게 ‘의원불패를 깨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 보실 때 의원불패도 웃기지만요 ‘의원을 완패시키겠다’고 해서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것도 우습고……

그런데 제가 지금 사례를 든 세 가지 경우는 보면 이것은 야당에 의한 의원행패 수준이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세무서에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경찰에 확인하면 되고 권익위에 확인

하면 될 일을 무턱대고 이렇게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실 검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뒷말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된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를 당연히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시간에 혹시 후보자가 하실 말씀 있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전교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게 범외노조를 통보하고 사회적 갈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달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전교조 범외노조와 관련해서 대법원과 정부가 사전조율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또 박근혜정부와 청와대가 아주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범외노조화 하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과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범외노조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가 대법원에 접수했다는 것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눈엣가시였던 전교조를 범외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배후에서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전교조 범외노조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 심지어 사법부까지 총동원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전교조가 범외노조 상태에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정부가 나서서 유린한 것으로 전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현장에 대화의 한 축인 전교조가 범외노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장의 갈등과 논란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전교조가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범외노조 상태에 있는 현 상황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는 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안정화라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한국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범외노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회와 협력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처한 위치에서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교육부장관으로서, 또 사회부총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현장의 여러 갈등들을 잘 조율하고 모아내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지 마시고 사회갈등의 한 축으로 되어 있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PPT 영상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화면을 띄워 주시면 이미 후보자가…… 이것 답을 주세요. 종합소득세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을 때 급여 플러스 특강에 대한 기타소득이라고 후보자가 알려 오신 것 아닙니까? 이미 질문을 다 확인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면질문에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박용진 위원 세비가 들어가 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나간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1분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열 예, 말씀하십시오.

○전희경 위원 지금 박용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의원 하시면서 하셨던, 타인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참 너무나 배치된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지금 8500만 원의 기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요청시스템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한 게 후보자, 언제인

지 기억하십니까? 9월 7일입니다. 이때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습  
니다. 9월 13일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속소득 종합소득신고액에 대해서, 왜? 이전에  
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종합소득 신고가 갑자기  
들어 왔기 때문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월 13일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서면질의로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답변, 9월 17일 날 별도제  
출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및  
특강비라는 한 줄짜리 답변을 언제 주셨습니까?  
9월 18일 날 주셨습니다. 어제.

○**위원장 이찬열** 전희경 위원님, 질의 시간에  
해 주셔도 될 얘기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래 놓고서, 이렇게 일종의 자  
초위난을 자초해 놓고, 왜 기자들한테 해명자료  
보내는 종합소득신고서 한 장을 국회의원이 몇  
차례씩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못 줘  
니까?

○**위원장 이찬열** 전희경 위원님, 그것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 시간에 좀 해 주시고요.

○**전희경 위원** 그래 놓고서 이것에 대해서 본  
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이찬열**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 아니, 다 준…… 받은 자료들인  
데……

○**전희경 위원** 자초위난입니다, 자초위난.

○**박용진 위원** 모든 위원이 받은 거예요.

○**조승래 위원** 국세청 자료 다 있어요, 여기 보  
면.

○**위원장 이찬열** 아니, 잠깐 좀……

○**전희경 위원** 후보자가 제출을 안 하는데 어  
떻게 합니까, 개인자료를.

○**박용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조승래 위원** 국세청 자료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찬열** 기다리세요. 위원장이 얘기하  
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게 조 위원한테 갔는지는 몰  
라도 이쪽은 안 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희경 위원** 안 왔어요, 안 왔어. 9월 18일  
날 한 줄짜리 답변 왔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똑같이 줘요.

○**곽상도 위원** 똑같이 준 게 아니라니까. 각 개  
별적으로 줬다니까, 위원별로.

○**전희경 위원** 아니, 다른 위원이 제출받은 자  
료까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왔다니까요.

○**위원장 이찬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내부  
적으로 각자들 확인해 주세요. 받았다는 분 있고  
안 받았다는 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이  
안……

박용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김현아 위원  
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문하려고, 질의하러  
고.

○**서영교 위원** 공평하게 주세요, 공평하게 질의  
시간.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30초만 하세요.

○**박용진 위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찬열** 이제 신상발언 없습니다, 오  
늘.

○**박용진 위원** 아니, 신상발언이라고 그러면 본  
인 신상과 관련된 얘기를……

○**위원장 이찬열** 주질의 끝날 때까지 신상발  
언 참아 주세요.

○**박용진 위원** 할까요?

○**위원장 이찬열** 예.

○**박용진 위원** 신상발언이라고 하면 본인의 신  
상과 관련돼서, 제가 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팩트를 잘못 체크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  
시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서, 모두가 다 받은 자료를 가지  
고서, 제가 이 자료도 지금 일부러 띄웠잖아요.  
이것 해석 못 하세요? 이것을 해석 못 해 가지  
고 마치 영똥하게 황제특강받은 것처럼 기자들  
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여당에만 보냈단 말입니  
까?

○**박용진 위원**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것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료 이것 오늘 아침에 받으셔도 말이  
예요, 오늘 아침에 받아도 세무사한테 전화 한  
통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국회 망신도  
유분수지, 그렇게 해 놓고서 왜 후보자한테 닦을  
해요.

이렇게 부실검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

○전희경 위원 자료 제출 안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비판을 하려 하십니까?

○박용진 위원 남의 얘기 좀 들으세요, 제발. 전희경 위원님!

남의 얘기 안 들으면서 말이야, 부실검증하시면 되겠어요! 예?

○전희경 위원 본인 질의를 하세요.

○박용진 위원 국민 앞에 창피하지.

○전희경 위원 여당 위원답게 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잘 좀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희경 위원 야당 위원의 명백한 검증까지 방해하지 마시고.

○박용진 위원 친구 중에 세무사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 보세요.

○위원장 이찬열 자, 위원님들.

○전희경 위원 자료 제출 안 된 것을 여당만 가지고 계시다고요.

○박용진 위원 전화해 보면 나올 얘기를…… 창피하게 이게 뭐냐고.

창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찬열 전희경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전희경 위원 자료 제출 0건 하신 박용진 위원님이 창피하시겠지요.

○박용진 위원 남이 얘기할 때는 들어요, 좀. 남이 얘기할 때는 들어. 그게 맞는 거예요!

○전희경 위원 말씀 짧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찬열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을 존중해 가면서 하시자고요.

○박용진 위원 말 딱딱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국회의원 역할.

○위원장 이찬열 자, 다음은……

이제 숨 좀 쉬세요들.

○박용진 위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진짜 국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전희경 위원 본인 국회의원 역할에 대해서나 생각하세요. 자료 제출 0건 요청하는 의원 처음 봤습니다.

○박용진 위원 자료 제출 0건이라도 100건을 하신 분보다 훨씬 낮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창피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전희경 위원 아니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국가가.

○전희경 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자, 위원님들 서로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조금 이해하는 방향으로 존중을 하시자고요.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 의원실에 7급 비서로 오 모 씨라는 분이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언제부터 이분이 비서로 근무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2013년 3월부터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후보자님 남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요 저기도 같은 이름의 오 모 씨가 있습니다. 의원님 비서하고 동일인 맞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맞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 비서가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 의원실에 들어오기 전에 남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13년 1월인가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3월에 저희 전직 행정비서가 임신 때문에 그만두게 되어서 당시에 행정비서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아 위원 남편분 회사에서 퇴사하셨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기 지금 현재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사외이사로……

○김현아 위원 아니요,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게요? 사외이사 아닙니다.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사내이사로 계속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일을 직접 나가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사해서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와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하고의 어떤 금전적·사업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나요? 아니, 법적으로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사내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것을 정리하셨어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이번 과정에서 저것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번에 정리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정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사내이사에서 이제 빠지는 것으로, 사임하는 것으로……

○**김현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내이사로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하신 것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 회사가 법인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인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본인도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후보자님, 그건 말이 안 되는게요 회사는요 매출이 있건 없건 간에 폐업신고를 해서 완전히 닫기 전에는 회사예요. 지금 그게 장관후보자가 하실 수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 그러면 회사가 매출이 전혀 없으면 그냥 폐업 상태에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천연농장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요 폐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 폐업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가 증명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제가 요청한 것 중에 남편분 회사의 국세청 매출실적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말씀대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매출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인가 자료를 제출……

○**김현아 위원** 어디에다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재산신고상에서 후보자 남편분의 소득이 매년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숫자를 보고서 좀 놀란 게 있는데요 매년 똑같이……

지금 2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천연과 천연농장 2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주식회사 천연은 저희 남편이 대표는 아니고요 주식회사 천연농장만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하여튼 천연은 지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재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그런데 매년 매출액이요, 저기 보세요. 똑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만 금액이 있어요. 연간 매출액으로요 주식회사 천연농장을 보면 2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 위에 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폐업이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든 저렇게 매년 매출액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제가 사실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셔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상 천연이나 천연농장이나 실제적인 매출 규모를 갖고 있지 못해서 재산 신고에는 출자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분액을 포함해서 신고를 했고요.

저기 적혀 있는 매출액은 참고로 매출액을, 그러니까 재산총액에 포함된 게 아닌 참고사항으로 2000만 원을 적었고 저희 행정비서가 이 부분을 0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자문을 구했더니 회사가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출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기록해 놨던 매출 2000만 원을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기록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 행정비서가 바로 오 씨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맞습니다.

○**김현아 위원** 행정비서 오 씨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그러면 오 씨가, 자기가 남편분의 재산에 대해서 매년 신고하는데 본인이 저 회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몇 개의 법인들이 사실상 수익을 내거나 경제적인 의미의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들

어오거나 매출 규모가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국세청에 그 회사가 매출 신고한 그 실적 자료를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매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남편분만 동의하시면 내실 수 있고요. 빨리 오전에 가서서 그거 오후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 남편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김태오라는 분은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누구요?

○**김현아 위원** 김태오요. 김태오 씨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남편의 친구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 정도만 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최근에 이분하고 남편하고 새로운 회사 하나 설립하신 거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립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같이 좀 도와 달라 해서 올해 초엔가 그렇게 같이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현아 위원** 이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말씀드리겠는데, 후보자님 남편분에 대한 내용을 후보자님한테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고맙습니다.

○**박찬대 위원** 충분히 국민들께 검증 잘 받으시고 주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오기 위해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출산 국가 또 고령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워킹맘들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국민들 앞에서 사과했지만 자녀에 대한 보육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계속 받아가면서 여러 번 이사하고 시어머니하고 함께 일해 왔던 현실을 보면 아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 나가야 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겸임교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도 겸임교수를 해 봤는데 겸임교수는 보통 학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 동안에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의료가 나오고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의료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만약에 강의를 하지 않게 되면 겸임교수가 아닌가요? 겸임교수 자격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런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그러면 우석대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떼었는데 강의는 한 학기밖에 안 했지만 특별히 2년간 겸임교수 경력으로 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런 적이

없고요.

저는 제가 2012년도부터 강의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겸임강사에 대한 계약서를 2년으로 쓰고 있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부됐다고 합니다.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1년 정도 겸임교수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경력증명서상에는 강의를 한 기간만 경력으로 떼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겸임교수 경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떼어 준 경력증명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희경 위원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랑 관련해서 약간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 본인도 본인의 종합소득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바로 다 완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연말정산과 함께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소득이 완료가 되지요.

그런데 유은혜 후보자께서는 보니까 국회의 세비 말고도 약간의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기타소득이 이 해당 기간에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가지고 신고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착오라든가, 아니면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타소득은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15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신고했던 것은 세비 외에도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납부하는 그 의무를 더 엄중하게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혹시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실적을 땔 때도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종합소득은 다시 종합소득대로 이중으로 기재가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또 한 번 더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아마 모르셨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박찬대 위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관련해서 천연농장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천연농장, 어떻게 보면 자본금 1억짜리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우자 되시는 분이 한 3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신고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 보시면 작은 기업이 세워져 가지고 영업을 의욕 있게 시작했다가 지속가능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바로 매출이 중단됩니다. 매출이 중단되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세무서의 권유에 따라서 휴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휴업기간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직권으로 폐업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천연농장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많은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산 상태에 들어가고 폐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법인격을 정리해야 되는 실질적인 법적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현실적으로 휴업과 폐업을 거쳐서 청산 절차까지 별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법적으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업을 해도 그런 절차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국정 업무를 하는 과정에 배우자가 바깥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천연농장과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요청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5개연도 치의 매출액이 나와 있는 간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관련 자료를 주시면 천연농장의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지금까지 왕성하게 매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영교 위원님까지 질의하신 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우선 유은혜 위원님, 그동안에 의원 하시다가 교육부의 책임을 맡게 되는, 내정이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라는 것이 세금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정책을 알고 있는지 또 잘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 후보자님, 제가 교육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형 사립대를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동의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실행을 그대로 하실 겁니까? 우선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영형 사립대 취지는 국정과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고요.

○이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은 반대를 하는 겁니까? 우선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군현 위원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형 사립대학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 신청을 교육부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 4년제 대학 3개, 2년제 대학 2개 해서 811억 예산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되지 않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왜 기재부에서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19년도 예산안에 800억이 넘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5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군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즉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없으면 그러면 무슨 타당성을 검사한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러니까 예산이 500억 이상으로……

○이군현 위원 아니, 500억 이상 아는데 그걸 앞으로 1000억으로 더 높이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B/C라고 해서 비용투입분의 산출이, 그 베니핏(benefit)이…… B/C라는 게 B가 베니핏 아닙니까? 우리가 비용 들인 것에 비해서 나오는 이득이 별로 신통치 않다라고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재부가 판단할 때 재정 지원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반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재부에서 국회에 안 넘어온다는 것은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서 볼 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야기는 ‘국회 예결위에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답변 온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저희가……

○이군현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 왔잖아요. 저희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회에서 한번 노력해봐라’ 그렇게 답변이 올라 왔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러니까 500억 이하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군현 위원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안 된 것도 할 수 있는데, 정부 판단은 그랬었고 국회에서 판단은 그것은 또 얼마든지 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여튼 정부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국회에 넘기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 조달 방법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의 수단이 뭔가요, 핵심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산이지요.

○이군현 위원 예산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돈 아닙니까? 정책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 봐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 예산 조달 방법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 넘기지 않은 거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선 공영형 사립대학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그 발상이 시장경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헌법 취지에 굉장히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사립대학은, 대학이나 초중고나 다 정부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과거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면 재정이 약해서 그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사립학교를 세워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립학교를 세울 때는 그것이 초중고가 되었건 대학이 되었건 건학 이념이 있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 학교를 세운다 또 어떤 학교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건학 이념이나 그 사립대학

의 자율성이 공영형으로 하게 되면 핵심이 됩니까?

물론 본 대학들이 원하는 대학에만 공익 이사를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나요? 재정 상태가 어려운 대학이 공영형 대학을 신청하고 재정 문제가 별로 없는,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공익 이사를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부실한 대학들만 사립대학을 국비로 연명해 주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립대학의 건학 이념을 또 자율성을 해치는 이런 것을 왜 지금 정부에서 또 장관후보자께서 계속 하겠다고 하는지 그것 간단히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는요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여러 고졸 학생들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의 기업들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공영형 사립대를 지원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거점을…… 그것 알겠는데요. 교육부에서 지난번 장관 때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사립대학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충분히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전국별로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만큼 그 재정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운영해라 하는 것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래저래라 하지 않는 게 좋지요.

자본주의가 언제 가장 잘 작동합니까? 그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간섭하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둘 때 캐피털리즘 워크스 베스트(Capitalism works best)라고 우리가 경제학을 할 적에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본주의는 간섭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둘 때 가장 잘 작동한다 그것이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뭐예요? 두 가지 아납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 아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두 번째, 제가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공영형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목적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이군현 위원 마이크 좀 넣어 주시겠습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핵심이,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하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맞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분야의 사기 진작을 또 이공계 발전을 위해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애들도 체육 못지않게, 국제대회에 가서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딴 애들에게 병역 혜택을 좀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사회부총리니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국방부나 병무청과 모든 장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병역법을 재검토하게 되니까 체육 플러스 예술, 예능은 물론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국제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수학·과학 분야에서의 병역 혜택을 고려하는 걸 반드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국민적 공

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의혹 제기가 여러 가지 나와서 저희가 좀 살펴 보니까 아니면 말고 식 던지기 아니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저도 철저하게 파헤칠 텐데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사무실을 시·도의원들을 대납시켰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그 사무실에 ‘유은혜 사무실’혹시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로 되어 있었구요, 거기는 지역위원장인 저와 시·도의원 5명이 함께 합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그 시·도의원들한테 전화도 해 보니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수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 함께 사무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써 있는데 저 사무실 맞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시·도의원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민주당 시·도의원 사무소’라고 간판이 되어 있으면 시·도의원 사무소이지 이게 뭐 대납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저 간판 하나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의뢰해서 선관위가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하셨다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합동사무소로 개소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

고 그리고 저 사무실에는 수시로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문서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과도한 공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피감기관에 들어가 있어서 혹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압력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 내용은 당시에 계약을 담당했던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유은혜 의원 잘못 없다’ 용기 있네요, 그 담당자.

그리고 저 건물이 당시에 교문위 산하에…… 이름이 뭔가요, 저 건물 이름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올림픽스포츠헤센터입니다.

○서영교 위원 일산올림픽스포츠헤센터라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공개적 입찰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 건물은 그 공간이 17번 유찰됐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보니까 2년 동안 공실이었던다고요. 그리고 공실이었으니 저 직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어야 했고, 그래서 계약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계약 상황에 맞춰서 계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150만 원 정도……

○서영교 위원 특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짝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짝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은혜 의원 사무소는 201㎡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는 118㎡예요. 그러면 유은혜 의원 사무실이 두 배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보증금은 보니까 유은혜 의원 사무실은 약 1800만 원, 그 법무사 사무실은 약 570만 원. 보증금은 약 세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보니까 유은혜 의원 사무실은 약 150만 원가량 그리고 그 법무사 사무실은 약 50만 원. 임대료도 세 배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감정평가를 받아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한다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은혜 의원 사무소는 똑같이 바로 옆에 있는데 비교해 보면 좀 더 비싸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혜받은 것 있었느냐, 없다.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 있었느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압박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어떤 피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원들 다 특혜받았다, 갑질이다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번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무상교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대한민국입니다.

○서영교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세금이 얼마나 더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전체 세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영교 위원 예.

22조 정도 더 걸렸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거뒀으면 그것을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교육부장관후보자님, 사회부총리후보자님 이것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영교 위원 대통령의 공약은 언제부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원래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영교 위원 2020년부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은 잡

있습시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서영교 위원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뭐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내년부터 가능하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고등학교 1학년은 혜택받고 고3은 혜택 못 받고 졸업해야 하나요? 저는 사회부총리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당장 내년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에 재원이 한 2조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서영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교부율 높이는 법안 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그 법을 근거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잘 해 주시고요. 다른 후보자보다 정치인 후보자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오전에 이어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후보자님, 지금 유은혜 후보자님이 교

육부장관으로 임명되신 후에 신조어 하나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신조어가 탄생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해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은혜 후보자님도 인정하셨지만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 딸은 1996년 10월 30일 날 위장전입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위장전입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주소를 이전해 놓은 곳은 성공회 신부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전희경 위원 종교시설입니다. 성공회의 종교시설에 위장전입을 하신 겁니다.

다음 PPT 넘겨 주세요.

이게 성공회의 서울주교좌성당입니다. 여기에는 의미 있는 표지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도 표지석이 보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보입니다.

○전희경 위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유월민주항쟁 진원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유월민주항쟁 진원지, 성공회 성당 여기에 위장전입을 하신 겁니다.

해명에서도 민주화를 거론하셨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일생을 헌신했다고 하는 민주화에, 그 민주화의 성지에 주민등록법상 명백한 실정법 위반 위장전입을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곳은 신부님의 사택이었기 때문에 가정집이라고 생각했지 성공회 성당하고는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참 편리한 답변이십니다.

신부님이 거주하는 사택, 성공회 성당에 부속된 건물, 종교시설, 여기 표지석대로 민주화의 진원지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위장전입이라.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성공회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결과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건 아니

고요, 위원님.

○전희경 위원 듣고 하십시오.

이렇게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곳에 위장전입을 하신 겁니다. 본인의 평소 소신과 명확히 배치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법 제37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위장전입 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PPT 넘겨 주세요.

본인은 2007년 부대변인 시절, 그러니까 본인께서 부대변인 시절에 본인이 타인의 위장전입을 맹렬히 비판한 저 논평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런데 유은혜 장관후보자가 바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랬다, 유명 사립초교…… 본인은 국제규격 수영장까지 달린 모두가 가고 싶어 한 공립학교, 부동산 투기 때문이 아니다, 위장전입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해피한 논리라고 해 놓고 본인이 명문 학군으로 전학한 것 아니다, 부정한 목적 아니다, 낙마했던 생생한 기억을 상기하라,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입니다.

우석대 자료를 그렇게 안 내시다가 점심에 몇 장을 제출하셨는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경력증명서에 2년으로 교원 경력이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아까 오전 질의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휴직할 때는 급여 같은 것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유은혜 의원이 의원 하실 때, 2012년에 되셨을 때 국회법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당시 국회법,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걸로는 제29조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리고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4항 보셨습니까? 의원이 당선 전

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대해서는 하시면서 4항은 누락하셨네요. 국회법 위반하신 겁니다. 겸직 신고 의무를 위반하신 거예요.

본인은 경제적 급여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경력은 2년 동안 유지된 건데 이렇게 경력상 본인이 실제로 그 직을 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풀려진 경력 뺨튀기 특혜는 그럼 부당한 이득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도덕관이 과연 그토록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어 온 유은혜 의원의 도덕관이라고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석대 이 내용을 봐도 참 이상합니다.

우석대 총장이 누구셨습니까, 당시에? 누구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총장님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전희경 위원 못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이사장님만 기억합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요, 기억 못 하실 리가 없는데요.

강철규 총장입니다, 본인 재임 시에. 강철규 총장은 총장 되신 후에 김근태 민주주의연구소를 개소할 만큼 그렇게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여기에서 전임 강사, 전임 조교수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분을 기억 못 할 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강철규 이분께서 2012년에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하신 걸로 저 프로필 보니까 나와 있는데 본인은 심사 안 받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당시에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구였는지 그렇게 기억해야…… 하지 못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기억력을 편의적으로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사실입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석대에서는 명백하게, 우석대의 규정에는 후보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면직절차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경력을 부풀리게 해 주고 그때 총장으로 재임하셨던 분이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시고 이걸 국민 이전에 그때 유은혜 후보자와 같이 심사받으셨던 다른 후보자들이 불공정 이의를 제기하셔야 될 만한 사안이에요.

다음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실정법 위반, 이러니까 민주화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조어 탄생, 민주화 갑질.

사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2년짜리 정부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승래 어떻게 답변……

○전희경 위원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승래 답변 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앞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드렸던 것처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석대 경력과 관련해서, 저는 강의한 이후에는 금전적인 어떤 지급을 받거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년의 경력이 저의 정치활동에서 경력으로 굉장히, 어떤 이익을 취했던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깊이 잘 새기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까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확정하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지금 지명을 받으신 이후에 언론보도가 하루에도 몇 건씩, 토털로 따지면 10건도 넘을 정도고요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해서 비리다, 의혹이다 그래서 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는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됐고요, 또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금방 문제 제기를 했던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가 후보자를 오랫동안 알아본 바로는, 89년도에 학교를 졸업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대학 졸업은 85년도에 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85년에 졸업하신 이후에 약 30년, 40년 이 기간 동안 시민운동 또 반정부운동, 독재 반대운동을 하시면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과 딸 둘을 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살펴 줬습니까? 친정 부모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시부모님, 시어머님이 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신경민 위원 시어머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다니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계속 제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 근처에서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신경민 위원 지금 그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86세 이십니다.

○신경민 위원 어디에 살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와 같이 살고 계십니다.

○신경민 위원 언제부터 같이 사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한 10년쯤 됐습니다.

○신경민 위원 10년 전부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두 애를 보살펴 준 할머니가 지금 같이 사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아드님이,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큰아들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둘째 아들입니다.

○신경민 위원 둘째 아들입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시부모님댁 근처를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계속 주변에 살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문제가 됐던 덕수초등학교 저 사건 때 시부모님은 어디 사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때도 어머니는 서대문구에 살고 계셨고요, 그 주변에 저는 살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덕수초등학교 근처를 떠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을 계속 하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덕수초등학교를 떠나기가 어려웠…… 아니, 거기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산으로 먼저 이사를 가서 제가 또 따라서 일산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따님 문제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말씀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때는 또 제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셔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아드님 병역 문제도 아들이 군대 가기를 본인도 원하고 유 후보자도 그 당시에 엄마로서 원했던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 아들이 대학 진학을 못 하고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졸업하자마자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와서 이후에 본인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신체검사를 받았고요. 당연히 군대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정어머님은 별로 손자, 손녀를 돌봐주지 않은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주로 전적으로 다 돌봐준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시부모님 앞에서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신경민 위원** 친정어머님도 서울에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울에 계십니다.

○**신경민 위원** 친정어머님은 하여튼 애들 문제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하신 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하여튼 그런 워킹맘으로서 또 반정부 투쟁, 반독재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 피감기관의 소유 건물 문제, 지금 청원을 받고 있는 대표발의 문

제, 우석대 문제, 합동사무실 문제 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던 종합소득세 문제, 교통위반 문제 또 정치현금으로 시의원을 공천했다 하는 문제, 전부 하나하나 뜯어보면 언론이 굉장히 부풀려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언론이 한쪽 측면, 한쪽 얘기만 듣고 부풀려서 선정적으로 기사를 썼고 그것을 다시 야당 의원들이 받아서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게 다시 증폭이 되고 이런 주고받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변인을 오래 여러 번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언론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이 서로 증폭을 하고 야당과 주고받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는 질의가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첫 여성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번 개각에서 중심적인 타깃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야당이 먼저 타기팅을 한 겁니까, 언론이 먼저 타기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서로 증폭을 하면서 주고받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갖는 소회 중에 하나는요, 언론이,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쓰는 용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좌절했던 적이 있고 싸우다가 이긴 적도 있고 진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쓰는 용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서 ‘이것이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쓰지 않는 판단력도 저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에 관련된 10개가 넘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물론 의혹 제기할 수 있지요. 그게 언론의 임무고 또 언론은 권력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최선·최후·최고의 목표지요.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10개가 넘는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쓰지 않는 판단력이 한 번도 발휘가 안 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 10여 개의 케이스 중에 쓰지 않는 판단



력, 쓰지 않는 용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가 있으실 것 같  
아요. 한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잘못  
한 부분이 있고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공  
직자로서의 엄정한 자기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지  
적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성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런 문  
제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부풀리기 해서 보도된  
기사들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받아서 공  
천했다고 하는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저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였기 때문에 언론중재위  
에 정보보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신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시  
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후보자님, 저희가 야당 된 지 얼  
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장관을 우리 당에서 많이  
임명해 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장관직에 많이 가  
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따라서 장관이 바뀌는 것,  
특히 내각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이 지금 유  
은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비우  
호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 보기에는 언론이 사실은 우리 야당한테 비우  
호적이지 여당한테 이렇게 비우호적이 아니거든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도가 80%였  
어요. 저희 느낌에는 온 언론이 전부 다 대통령  
과 여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위해서 뭔가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억울함까지 있  
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장관후

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각에  
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총리라는 직함이 가지고 있는 무게  
그리고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중요함, 이런 것 때  
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계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아주 많은 분들에게, 본  
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한 검증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거나  
언론이거나 이분들이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부총  
리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  
셔야 되셔도 오랫동안 국민 뜻에 부합하고 또 교  
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할 수 있다……

대개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얼렁뚱땅 넘어가거  
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들을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  
을 것 같아서 일단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걱정은 있어요.

내후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지 않  
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홍문종 위원 장관후보자에게서는 다음에 또 출  
마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

○홍문종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혹시 부총  
리나 장관이라는 자리가 다음에 출마하기 위한,  
어차피 만약에 출마하신다고 그러면 1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육부장  
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출마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곧 있  
으면 금방 청문회 하고 내년 이맘 때 되면 또 사  
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  
이에요. 교육의 백년대계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맨날 교육부총리나 장관은 과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본인으로서—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니까요—장관후보자로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야당 위원들이 이것저것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당 위원들 얘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야당 말 안 듣다가 이렇게 야당 됐어요.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 말 그때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까 하는 문제들을 여당에서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언론하고 무슨 쿵작쿵작 해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후보자께서는 여당 얘기 물론 중요하다는 야당이 하는 얘기 잘 들어서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지요, ‘피감기관 사무실 2년 동안 안 나가는 거 거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의원이 피감기관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피감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요.

우석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사표 냈는데, 사표 낸 것을 본인이 몰랐다, 그래서 2년짜리다’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합니다마는 소가 옷을 일이지요. 본인이 사표 냈는데 2년 동안 무조건 됐다고 경력을 2년을 그렇게 넣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장관후보자에게서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얘기할 때 이 문제를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그동안 2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설명을 해서는 장관 하시는 데……

만약에 부총리가 되시면 저희하고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도 하고 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하시는 말씀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랬는데, 별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야당 의원 하시면서 바깥어른하고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지하게 많은 제보를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화들이 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얘기를 다 여기서 후보자한테 까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검찰도 아니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후보자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나중에 혹시 부총리로서,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직책입니까? 우리 내각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 때문에 바깥어른께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동안 부적절한 행동들 때문에 혹시 일하시는 데 지장이 될까 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다 압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후보자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전교조 문제하고 임시직·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에게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따가 또 묻겠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노동부하고 뭐 하겠다’ 전교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간제 교사 그리고 임시직 만드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 장관후보자에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그러면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홍문종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하시고.

마지막 임시직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본인 생각……

○**위원장대리 조승래**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일들 충분히 제가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 엄중하게 자기 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저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직·기간제는 학교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문종 위원** 아니, 옛날에 국회의원일 때 기간제를, 임시직을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교육공무직법 발의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문종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는데, 언론에 대해서 대답은 하셨는데 지금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를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전교조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래**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김해영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금 국가적 현안인데요.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교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명에서 정말 아이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인재는 창의적이고 또 협업을 잘할 수 있고 또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수업부터 창의적인

교과과정, 수업, 평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하고 30% 이상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지만 모든 교육의 중심이 대학입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또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가 그런 선택의 기회를,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또 수업과 평가의 시스템을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김해영 위원**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학을 가지 않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혀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국정과제의 주요한 부분으로 고졸 취업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업과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국립대나 전문대학과 연계해서 선 취업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장학금이나 또 후 학습을 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리 그 지역의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이한테 취업을 하고 필요한 학습은 그 이후에 또 후 학습의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들을 곧 발표할 예정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대입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표절해 불합격된 학생이 1406명이라고 합니다. 교사추천서 표절 사례도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개선책으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8월 17일 날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종에 대한 여러 가지 불

신, 신뢰하기 어려운 공정성의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이러한 학종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발표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사 추천제와 같은 것은 다 없애도록, 폐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22 대입제도에서 발표한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부터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매우 단순화 시켜서 그리고 교사들의 평가도 2000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시킬 수 있도록 지금 교사 연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크게 나왔는데 숙명여고에서 성적 관련한 의혹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오늘도 숙명여고 관련한 보도들이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근무하고 학교에 다니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전체로 조사를 해 봤더니 농어촌 학교나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시와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그 교사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시험지의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라든가 관리감독의 문제에서도 또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지 유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도 훨씬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수도권 대학이 지방 대학보다 더 유리했다는 그러한 지적이 일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관련해서는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개 권역별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여전히 지방대가 좀 피

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2015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방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권역으로 평가가 되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김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김한표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유은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의미 깊게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에 대한 자격 검증을 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후보님의 딸 입학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좀 전에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유 후보님 그동안 대변인으로서 혹은 상임위원활동을 통해서 상대방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놓고 정작 본인의 문제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위장전입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많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사하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과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옳은 일 아니었겠느냐, 아무리 좋은 직책이나 일도 결국 유익하냐 안 하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를 위해서 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유은혜 장관후보님께서 본인께서 사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이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특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지 못한 우리 학부모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교육부장관이 되시는 분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애써 법을 지켰던 학부형들은 뭐냐, 이런 참 서글픈 흔적들을 남기게 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거사무실 임대 특혜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공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사이드로 듣기에는 유은혜 의원님 사무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옆에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한표 위원 다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뭐 그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담당자 6명이 임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정직이나 감봉을 당했어요.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직·감봉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건이 보도되었을 때에 ‘이는 야당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더 따져봐야겠지만—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임위 소속의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고 정직이나 감봉을 당했을 때 본인 자신과 그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유은혜 의원님이 정말로 그렇게 자세를 취하셔도 되는지, 법적으로야 어쨌든 간에 본인께서 판단을 다 하고 계시지만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없고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사무실을 입주하면서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특혜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입찰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한 점 오늘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승래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저는 한참 나중이야 알았고요. 이렇게 사무실이 피감기관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번 상황에서 더 깊이 깨닫고 지금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의원 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양해도 하고 서로 그러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할 부분은 하셔야 되고, 그런데 야당의 정치 공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야당이 우리 유은혜 의원 발목잡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생각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청와대에서 강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뼈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야당 위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최초의,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고 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 시키신다면 최초의 여성 부총리가 되십니다. 우리 건국 이후에 최초의 여성 부총리가 되시는데.

그런데 지금 장관 지명 철회 이 건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눈여겨보시고 한번 열어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와대에 접수된 건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흩어진 것 다 보태면 한 8만 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독 유은혜 장관후보자 지명에 관해서는 철회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철회 요청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감회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반대하고 있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2016년도에 발의했던 교육공무직 관련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표 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따가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찬열 예,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서 저의 지명 철회를 요

구하는 그 글들을 제가 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와 또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일했던 학교 회계직 그리고 청소용역 이런 근로자들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교육의 주체가 되고 함께 협력해야 할 모든 분들과 학교 현장의 우려를 씻어 내고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우려는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후보자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은 2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교문위였습니다. 그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때 당시 여당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했고 야당 위원들끼리 국정감사를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막 불거지기 시작한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 등등의 국정농단 사태가 속속 사실로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문위의 국정감사장은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감사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여튼 그러던 과정에서 당시 여당 위원들이 복귀를 했고 복귀를 하면서 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야당 위원들이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최경희 이화여대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안건조정 신청을 해서 증인채택 하는 것을 방해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야당 위원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공세를 폈습니다. 그 공세 중의 일환으로 유은혜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공세다라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공세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번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당시에 결혼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대문구 등에서 한 여섯 번 이상의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많은 이사를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1년이 지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쨌든 그런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다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조금 봐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이가 졸업을 그 초등학교에서는 하지 못하고 고양으로 이사를 가서 졸업을 하게 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어쨌든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실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자꾸 꼬여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특정감사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서—당시는 박근혜정부 시절입니다—박근혜정부 시절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특정감사 결과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고 ‘담당자의 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특정감사 결과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당시에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당시에는 보고받지 못하고 최근에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징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징계는 작년에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작년에 알게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어서 여기에 ‘피감기관의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문제인가'에 대한 의혹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은 할 수 있으나 관련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유은혜 후보자에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거버넌스나 합의체기구 같은 것들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이것에 기초해서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아마 후보자들이 다 그런 공약들을 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된 공약을 걸고 계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맞는 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의 역할은 개편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에게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승래 위원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매우 높고 큼니다. 그 점 잘 아실 텐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의 노력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런 체제를 그냥 둔 상태에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교육 문제에 대한 시스템이나 거버넌스를 잘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불신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은혜 후보자는 지금 현재와 같은 형식의 교육부장관으로서 마지막 교육부장관이 될 각오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라는 이런 관계로 개편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마지막 장관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장관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교육정책 미래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의 공무원들, 교육부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혁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을 어떻게 책임져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실제로 그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것을 제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위원입니다.

유은혜 장관후보자님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늘 보니까 일부는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일부는 오해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석대학교의 겸임교수 문제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우석대학교 자료를 보니까 급여는 2011년 2학기에만 나갔고 그다음에는 안 나간 거지요. 그래서 아까 대답하시기를 2011년 2학기만 있고 그다음에는 안 한 걸로 생각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저도 학교에 오래 있어 봐서 알지만 휴직을 해야 된다면 꼭 휴직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우석대학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없이 그냥 말로 강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경력으로 남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은 학교의 학사 관리를 잘못된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아까 유은혜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는 자기는 겸임교수 사용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 2012년 4월 총선 때, 저기에 나와 있는데 포스트에 말이지요.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겸임·전임교수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달 총선 할 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인지하셨다는 걸 확실히

보여 주고 있고요. 그러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인지했으니까 그것을 뺏어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됐을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전직 경력으로 썼던 것 같은데요?

○오세정 위원 아닙니다. 다른 건 다,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그러면 ‘(전)’ 이렇게 다 썼고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전)’ 이렇게 썼는데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겸임·전임강사는 ‘(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든 사람이 그때는 전임교수라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한 거고, 그랬으면 나중에 당선되고 나으면 당연히 휴직 신청을 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신 거라서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처리가 깨끗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다음에 지역구 사무실 문제도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입찰이 17, 18번째인가, 17, 18번 다 유찰이 돼 가지고 19차에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18차에 그 옆에 있는 건물, 옆에 있는 방, 203호가 낙찰되셨어요, 일순위로. 저기 자료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건물의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걸 계약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15일에 낙찰이 됐는데 안 하고 바로 16일 날 또 그다음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낙찰이 됐어요, 지금 쓰시는 사무실에.

그런데 거기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걸 안 하면 다음에 입찰자격을 박탈한다는 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단 직원이 그 규정도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2016년 2월 22일 날 입찰이 끝났는데, 22일 날 5시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5시 38분에 선거사무실 개소식 그래 가지고 여기다 딱 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페이스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 결과를 까기도 전에 거기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쓰신 걸 보면, 바로 입찰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대답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오세정 위원 예, 대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이 과정을 이번에 다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지금 입찰을 온라인상의 온비드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그 호수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호수가 아닌 곳을……

○오세정 위원 잘못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지만 규정상에 의하면 그러면 입찰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단 직원이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잘못했지요. 그리고 원래 들어가기로 한 곳을 다시 입찰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찰하기 이전에 온비드시스템은 전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세정 위원 글썄,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가 3월 3일 여기 사무실 개소식을 앞두고 그동안에 이곳이 입찰경쟁이 치열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찰 한 30분 전쯤에……

○오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 의원실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오세정 위원 그래서 올리신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것은 아마 그냥 예측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그냥 액셉트(accept)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다음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이것을 중도해지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징계가 끝나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모르셨다고 그러셨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이것도 이번에 확인해 본 것인데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당시에 아마 국감 기간이어서 그런지 제가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내용증명을 받은 것은 징계가 끝나기 전이었고요 10월 국감 기간 언저리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사안인데, 보좌관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중요한 사항을 의원한테 보고 안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그런 행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외압이나 특혜가 아니었어서……

○오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외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감사원이 나오면 당장 징계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신 건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더 신중하게 그때 당시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다시 생각했구요. 그래서 사무실은 이전하고자 합니다.

○오세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정책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쭙보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분야가 국민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못 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은 유은혜 장관님이 되시더라도 1년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펴실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임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송구합니다마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관이 누가 되든지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그동안에 교육부장관님들 평균 임기 기간이 1년 한 2개월여쯤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의 방

향과 그 추진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더 필요하면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못하면 저에게 또 총선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한 이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교육개혁과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제 정치 생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세정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다 마치셨는데, 저도 그러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세정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심각, 심각,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능력으로나 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그런데 만약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1년이라는 기간뿐이 없습니다, 대략.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게 후보자보다도 청와대 검증시스템에서 이것은 내 사람이니까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후보자는 그게 이것이 더……

나도 7분 주세요, 똑같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후보자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으로써 답변을 넘어 가시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원하는 답은 정말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부를 없애자고 하는 여론까지도 있는 이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으로서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총선 기회가 와 갖고 한 1년 남짓하게 하고 총선으로 땔 것인지 이것은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방금 오세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는데요……

○**위원장 이찬열**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1년 동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추진될 때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 과제들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려면 정책에 대한 조정이나 조율 능력이나 경험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역량들이 아마 제가 이번에 지명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을 잘 해소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이루는 것은……

○**위원장 이찬열** 잘 해소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총선 나간다고 나가시면 1년뿐이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열** 그게 아니기는 뭐, 날짜가 지금 더 이상 없는데, 지금 같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육부장관이 되고 사회부총리가 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기를 끝까지 같이 해야 될 분들이 와야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또 국민들이 보는 시선도 저는 바로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임기에 대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위원장 이찬열** 그래서 봤을 때 교육정책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유은혜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을 하셨다는 게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과연 끝까지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정을 했는지 그것은 의심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답변하셔 봐야 고민만 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 대학입학시험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교육공약을 수능을 점차적으로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을 보면 정시를 30% 이상으로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 정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도 한 25% 정도 내외 됩니다.

○**위원장 이찬열** 20% 이하지요, 대부분. 나머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뽑고.

그런데 대통령은 교육공약으로 해서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하자고 그러면 수능시험 적용 비율을 낮추자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절대평가라는 것은 패스·논패스만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수능시험의 점수를 중시하는 정시 모집을 20%에서 30%로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교육공약하고 현 교육부나 교육부장관이 발표하는 입시전형 내용 발표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찬열**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장 이찬열** 왜냐하면 정시를 늘리려면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런데 수능……

○**위원장 이찬열** 현장의 교육감들도 정시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수시를 늘려야 된다고 지금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교육계에서는 수시를 늘리고 또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는 의

전이 있고요. 또 그러나 학교현장의 학부모님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교육정책 공약하고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의 대입전형 입시정책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장님, 저는 그게 방향이 반대는 아니고요, 조금 속도가 더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찬열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 속도가 더디어졌다면, 정시를 20% 반영했던 것을 대통령께서는 한 5%, 7% 반영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장관이 17%, 18%, 19% 이렇게 했다면 이게 더디어진다고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방향이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교육정책하고는, 공약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거지. 방향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교육부장관은 플러스 쪽으로 확대를 시켜 버리고 그것도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공론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갖고 교육부장관이 움썩달썩 뿔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론화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론화에서 왜 정시를 더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불신’, ‘불투명’, ‘깜깜이’ 학생부종합전형 그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이게.

그래서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통령 대학입시정책 공약하고 현 교육부장관하고의 방향이 엇박자가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교육정책의 방향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것이 현장에 수용될 때에는 현장수용성이 높아야 갈등이, 혼란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능 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만큼의 그런 현장수용성이 없었고요. 그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의사였습니다. 수시를 늘

려야 한다는……

○위원장 이찬열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을 못 지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약을 1년 만에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방향이 같아야 좀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대통령 공약은 절대평가 하자 그랬는데 교육부장관이 한 것은 절대평가 하면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평가를 해서 더욱더 냉정하게 수능시험을 평가를 해야 정시모집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장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번에 발표된 대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찬열 계속 다른 얘기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수능은요……

○위원장 이찬열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혹시 전달이 덜 됐으면 몰라도 제가 원하는 답변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찬열 이제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면 다른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주질의가 끝나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시간인데 후보자도 힘드실 테니까 잠깐……

오늘 제가 점심시간도 넉넉히 드린 겁니다.

한 30분 정도……

○곽상도 위원 계속하지요.

○위원장 이찬열 계속하고 해요?

○곽상도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아니, 주질의가 끝났으면 보충질의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곽상도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괜찮으세요?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사이에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김한표 위원** 그냥 합시다. 방송국도 4시까지인가 그거밖에 여유 없으니까……  
 ○**위원장 이찬열** 그래도 생리적인 현상은 좀…… 그러면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사이에 모든 용무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위원** 후보자, 오전 질문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우석대 전임강사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한학기만 하고 나머지는 해지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 청와대에 낸 이력서에 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 맞지요, 이 이력서는? 청와대에 이력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이력서 냈습니다.  
 ○**광상도 위원** 이 이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원래 있었던 이력서를 첨부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상도 위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광상도 위원** 여기 보면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겸임 전임강사, 조교수 이렇게 해서 조교수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교수라는 명칭은 그 사이에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광상도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명칭이 바뀐 거라고 합니다.  
 ○**광상도 위원** 후보자님, 제가 묻는 것 답변하세요. 자꾸 제 말 끊지 마시고.  
 여기 보면 겸임 전임강사, 조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경력증명서를 후보자께서 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경력증명서요.  
 ○**광상도 위원** 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광상도 위원** 여기 보면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겸임 조교수를 했다고 이렇게 경력이 제시돼 있습니다, 후보자 손으로 직접 쓴 게. 후보자 말씀은 전임강사 한 학기만 하고 해지하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와대에 낸 서류에는 조교수도 1년 더 했다 하는 것을 본인 자필로 쓰고 본인이 그것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까지 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자필 이력서입니까?  
 ○**광상도 위원** 이력서는 직접 쓰셨다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광상도 위원** 이력서 안 쓰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기존에 썼던 이력서를 그대로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자필로 쓴 이력서는 아닌 것 같아서……  
 ○**광상도 위원** 후보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묻는 것 답변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못 하게 하는데 그것 좋은 것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 해명하신 것 중에 저는 의문스러운 것, 해명이 거짓말인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추궁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감사한 결과 채용 관련해서 부적정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부 때 인사자료입니다.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에 대한 조회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 경력기간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해서 최종합격하면 이게 인사 부적정 사례라는 겁니다, 이 채용이.

후보자가 이렇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내 가지고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석대의 경력증명서가 2년에 걸쳐서 그렇게 발급됐고 경력이 유지됐다 이것에 대해서 이 경력이 크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게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곽상도 위원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곽상도 위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면요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 후보자가 거짓말, 경력을 허위로 내거나 거짓 서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겁나는 거예요, 인사 검증하는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건설노동자들에 대해서 경력관리 실태 점검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경력 등록한 사람들을 형사처벌까지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찬열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대학교들, 학교들 학사관리도 교육부장관의 일입니다. 그런데 국립대의 경우는 지금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원 경력을 실제 강의 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이렇게 계약기간만 강조하면 경력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교원 연봉이 상승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처럼 후보자의 이런 문제가 있는 경력증명서를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장관이 되면 이다음에 사립대 교원들 관리 어떻게 합니까? 다 교육부장관도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나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후보자 때문에 교육부에 문젯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제가 겸직 신고를 당시에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저의 불찰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쭙었습니

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을, 교원들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한표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미 위원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만큼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만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지요? 2015년과 달리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해서 현재까지 추가환자는 발생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만 부처 간 정보 공유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자료 요청해 보니까요 8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만도 메르스 의심환자가 142명 발생했고요, 2015년 메르스 종식 이후부터의 의심환자는 562명이나 됐습니다. 그중에는 20세 미만도 85명이나 되는데요.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보건 당국과 교육 당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 다니는 20세 미만 의심환자와 관련해서는 보건 당국하고 교육 당국의 정보 공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칸막이 행정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각각 따로 놀면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또 부처 간 현황 통계도 막 달라서 혼선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회부총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부총리가 되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 당국이 학교 당국에 바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이번에는 교육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정보가 공유됐다고는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그런 공유시스템이 되지 않았었는데, 정보 공유는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간의 원활한 협업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 사회부총리로서

관련 부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협업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보건 당국, 교육 당국 다 사회부총리가 관할하셔야 되니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가 문제인 정부의 간판 교육정책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후보자는 대선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만들 때 또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사회분과위원으로 고교학점제를 같이 구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8월 17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2022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고교학점제를 25년으로 시행을 3년 연기했잖아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학교가 전국적으로 105개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시행 연기에 따라서 그 학교들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들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실 생각이신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연구학교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한 100여 개 연구학교를 더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고교학점제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 작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학생들,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기간들을 조금 늦추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채용과, 그러니까 예산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고교학점제가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경미 위원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여러 가지, 22년에 가기로 되어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시범학교 운영도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살펴 주시고요.

22년에 부분 도입을 하고 25년에 본격 도입으로 순연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22년 부분 도입을 할 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

까 단위제를 학점제로 바꾸는 부분 수정을 해서 갖고 가고, 그다음에 25년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전면 개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전면 개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때문에 저는 그 일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에도 상임위 교육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제가 잘 검토해서……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을 개편하지 않으면 갖게 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의 문제도 말씀하셨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가능하면 부분 개정을 통해서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부분 개정요?

○박경미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 한 번 바꾸는 게 너무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어렵지요.

○박경미 위원 학교, 학생, 교사들의 큰 어떤 연구비용들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 우석대 경력 관련해서 후보자에게 질의할게요.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우석대는 계약을 할 때 일괄적으로 2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겸직 신고는 안 했더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겸직 신고를 하지 못했고요 2012년 총선 당선돼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그 학교에 알렸지요.

○박용진 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석대 겸임교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2년 동안 계속 보기 위해서였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데, 2011년 2학기에 하고서 그 기간에 강의료가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강의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용진 위원 엄청 고액이었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요, 얼마 안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40만 원 받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훨씬 많아요?

○박용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162만 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러니까 총합, 그러니까 한 달에……

○박용진 위원 총합계가 그러겠지요, 그러면?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억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많습니니다, 162만 원.

그리고 아까 선거 때 경력으로 넣은 것 말고는 이후에 특별히 어디에 경력을 이용해서 부풀리기 하거나 이런 경우들 따로 지적받고 있는 것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국회의원 출마한 것 말고는 따로 무슨 경력이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확인했고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안인데 1년짜리 장관이다라고 하는 지적, 저는 뼈아프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후보자께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하시는데 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잘 있으시다가 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경력관리용 장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정치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 역할,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소임을 잘 마치고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총선 나가고 이런 것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고 매우 의미 있는 역할

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기서 역할이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면서 혁신과 개혁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저를 그것을 하기에 1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각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 일에 최대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1년짜리 장관 얘기가 나올 때 당당하게 얘기하시려면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빛나는 장관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 빛나는 장관 역할은 첫째 관료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어디 눈치 보지도 마십시오. 지금 현직 장관께서도 여기 눈치 봤다 저기 눈치 봤다 이러면서 소신이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대로 나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1년 지나서 역할 다 잘했다, 그래서 충분히 총선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으러 가도 된다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교육부가 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 꼴찌입니다. 부처별 범죄 현황에서도 2위입니다. 올해만 해도 간부가 비리사학 총장에게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도 있었고요, 워크숍 경비를 산하기관에 상습적으로 전가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한데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자율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구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부 위원이나 컨설팅,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의

쇄신안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부 관료 개혁, 교육부 개혁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는 아마 교육부 공무원들도 교육부의 개혁 없이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가 자기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는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별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 내부의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하고 정책제안이나 업무추진의 기준과 절차를 훨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한표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유 후보님이 장관후보로 지명되면서 소통 능력을 되게 강하게 본인의 장점으로 주장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교육부장관, 특히 사회부총리는 소통 능력이 원 오브 템(one of them), 하나의 요소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청렴도 문제가 있는 이 교육 부분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후보님이 너무 유순하세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물으면 다 여당 위원들이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 후보님이, 그러니까 후보님의 말씀으로 후보님이 저에게 딱 부러지게 대답해 주시는 게, 자질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묻는 것에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실수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실수한 것도 법 위반일 수는 있지요.

○김현아 위원 법 위반일 수가 있는 겁니까, 법 위반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죄를 졌는데, 법을 어겼는데 자기가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한 거면 다 용서받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셔야지요.

실수하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법 위반이지요.

○김현아 위원 법 위반이지요?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우석대 겸직 신고, 어쨌든 간에 아까 오세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본인이 실수로 사직신청서 못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겸직 신고를 못 했고요. 그런데.....

○김현아 위원 아니, 겸직 신고 못 내셨고 강의 안 하면서 강의만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지 그 겸임 자리에 사직서를 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사직서를 내지는 않았고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팩트만 놓고 보면 법 위반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

○김현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실수한 것도 법 위반이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런데 당시에 국회법상으로는요.....

○김현아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오전에 여쭙봤던 비서관 겸직 문제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월급을 받지 않았지만 그 비서는 겸직을 한 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사내이사를 겸직했지요.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제가 장관후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에 지금 너무 오락가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느 누가 장관님을 믿고



개혁을 하고 법을 집행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사과할 일과 실수라고 얘기할 것은 명백히 구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에 선거 인쇄업체 어디로 지정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20대 총선 이요?

○김현아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가 프로아트라는 곳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여기와 왜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곳이 인쇄하는 데 퀄리티가 높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서 아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오래 거래하시면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남편분이 여기에 2015년 12월 22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근무라기보다는 영업을 한 근로소득이 신고된 것이라고 합니다.

○김현아 위원 무슨 영업을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 남편이 천연농장 등 했던 사업들이 잘 안 되면서 잡지를 프로아트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 시기에 어떤 잡지를 인쇄업체인 프로아트하고 연결을 시켜줬고 그 영업 수당으로 받은 급여라고 합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보니까요 12월 22일부터 그 해 말까지는 한 열흘밖에 안 되는데 12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 해에는 3개월 동안 360만 원, 그러니까 월 30일 기준으로 12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인쇄업체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사장님 소개로 일하다가 실적이 없어서 그만뒀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20대 총선 마치고 선거비용 보전 받으셔서 그 인쇄업체에 미수금 지급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지급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아 위원 지급했지요? 그런데 그 회사에 남편이 근무하셨어요. 이것 누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편이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어쨌든 영업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생계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에서는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김현아 위원 남편분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후보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실수도 범위반은 법 위반이고요. 앞으로 공직자를 하시면서 공직자의 가족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 업체에서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일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런데 이 일과 저의 사무실의 일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관계는 남편이 아는 분과 제가 아는 분이 동일인일 수 있고요. 남편은 다른 잡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서 그 영업의 결과로 받은 수당이고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면 남편분이 이 업체에 취직하시게 된 게, 남편분과 인쇄업체가 아시는 분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취직이 아니고요. 제가……

○김현아 위원 그러면 누가 소개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분은 원래 아는 사람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아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프로아트를 하시는 분과……

○김현아 위원 남편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남편이 알

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남편분의 아  
는 분한테 인쇄업을 맡기신 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처음에 그  
렇게 맡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쇄업을 맡긴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아는 분이더라고요.

○**김현아 위원** 혹시 그 아는 분이 연세가 어떻  
게 되신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는 잘 모  
릅니다.

○**조승래 위원**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한표** 정리 좀 해 주시고.

○**김현아 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  
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시면 되지요. 별  
써 한참 지났어요.

○**김현아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안 켜 주시잖아요.

이 인쇄업체 사장님이요 1911년생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한표** 김현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신경민 위원** 1911년일 리가 없지.

○**박용진 위원** 살아계세요? 대한제국 분이신데.

○**김현아 위원** 서류상으로 1911년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러니까  
실제 서류상으로 돼 있는 분과 누가 일을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쪽 대표님을 개인적  
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위원장대리 김한표** 이따가 또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연수갑 박찬대입니다.

후보자를 대신해서 자꾸 해명하신다라고 하시  
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후보자를 위해서 해명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관  
련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오해가 있  
다면 의혹은 풀고,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풀어 주는 것도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위반이 있었는데 고의로 하지 않고 실수로  
해도 법 위반 아니냐? 법 위반 맞지요, 그렇지  
요? 실수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고 법 위반을 실

수로 하는 경우도 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는 교육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그다음  
에 전문성 아마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배우자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후보자의 배  
우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  
니라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배우자 사이는 정말 누구보다  
도, 0촌 관계이고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후보자  
와 배우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김한표 간사, 오세정 간사와 사회교대)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까지도 후보자의 직  
무수행과는 상당히 독립되어 있는, 배우자와 관  
련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배우자가 했던 과거  
의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의 직무수행  
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비판이  
돼야 되지만 독립적으로, 배우자와 후보자는 독  
립적인 인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신  
고할 때도 부부간에 합산하지 않지요. 남편 따로  
하고 배우자 따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의혹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질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또한 아까 오 비서 분하고 관련해서도 그  
것도 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 형식  
과 실질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  
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휴업을  
거쳐서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실질적인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사실  
상 청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인  
이사냐라고 보게 되면 등기부상에 흔적만 남아  
있는 이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겸업으로 볼 수 있  
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만 하고요 제가 정책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제  
가 그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찬대 위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프로아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일과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게 남편과 저희 의원실 일이 관련이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프로아트 하고는 거래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시기만 그렇게 수당을 받았겠는지도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하십시오.

○박찬대 위원 아까 공영형 사립대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국정과제로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812억에 이르는 예비예산이 전부 삭감된 경우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찬대 위원 제가 이번에 전국에 있는 지역거점형 대학들 관련해서 시·구 의원들이라든가 지방의원들을 쫓 만나 봤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뭐냐하면 대학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단 비리가 바로 대학평가에 불이익을 주게 되고 그 불이익에 따른 교육부의 조치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정원이 감축되고 급기야는 만약에 폐교까지 가는 형태가 이루어진 다라고 하면 지역거점형 대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모든 부분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재단의 교비 횡령 등과 관련된 그런 잘못된 부분과 그다음에 학생들·지역사회를 독립적으로 구별해 가지고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공영형 사립대 이 정책이 아마 이 부분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49만여 명이지요? 대학 정원은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등학생이 다 졸업을 해도 대학 정원에 6만 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결국은 대학의 정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줄여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꼭 필요한 대안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 교육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

고요,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에 거점형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기업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좋은 선례를 한두 개 만들어 보면 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아까 기재부는 편성을 못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액수라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정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런데 공익형 사립대학을 하는데 취지야 그럴 듯해 보이지만 후보자님, 공익이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17대 개방형이사 즉 관선이사지요.

이사회가 15명 정도,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익이사를 집어넣겠다고 그러면 이사들이 자기 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학교 운영의 방향을 우지좌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지요, 사립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강제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립대가 원하는 경우에 그리고 공영형이라고 하는 게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돈 얼마 주면서 결국은 학교의 방향을, 경영을 간섭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제일 잘 굴러가요. 그게 간섭이거든요.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유은혜 후보자님, 혹시 우석대학의 강사 하신 것 외에 다른 교직의 경력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한신대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요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대학이 잘 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간섭의 형식이 아니라……

○이군현 위원 아니, 공익이사를 넣겠다는 것은,

의사결정구조에 사람을 공익이사를 넣겠다는 건 간섭을 하겠다는 거지요. 포장은 그럴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을 원하고 함께하는 사립대를 하는 겁니다.

○이군현 위원 지금 보세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매년 대학, 금년에도 연구해서 평가해 가지고 세계 100대 대학 속에 우리나라 혹시 몇 개나 들어갔는지 발표 보셨나요? 금년에 세계 100대 대학 속에 한국에서 몇 개 대학이 들어간 것 혹시 보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많이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저도 갑자기 지금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 4개였던 것 같은데요.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하고 서강대하고 서울대, 아마 그렇게 아닌가요? 저도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미국의 소위 거의 전문대학까지 합치면 고등학교 이외에 한 3000여 개 대학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대학들, 제일 잘 하는 대학들 사립대학 같은 것 대표적으로 동부에 하버드나 또 남쪽에 가면 남쪽의 하버드라고 하는 듀크대학이라든지 카네기멜론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요. 카네기멜론이 전자공학과 컴퓨터 엔지니어링, 컴퓨터사이언스는 세계 1위입니다. 그 대학들 무슨 이사회에 누가 뭐 간섭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대학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놔둘 때 대학이 가장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립은 거점에만 하는 것을,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건 국고로 100% 국가 예산을 세금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러나 사학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사학에, 공영이사의 그 공영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현 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좋다, 이제 철학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논란이 있

는데 의혹이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해 보면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김한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중에서 교육부장관후보이기 때문에 딸의 위장전입을 서대문에 사실 때 정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로 가려고 할 때 어느 집으로 주소를, 주민등록법을 어기면서 어디 누구 집으로 저기를 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당시에 덕수유치원의 같은 반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이군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맥이 누구 맥이었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친구의 아버님이 성공회 신부님이셨고요. 그 신부님이, 그 가족이 거기 사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군현 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교육부장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학입시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뿐만이 아니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내신성적 조작 문제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결과에서도 수능전형을 45% 이상 확대하는 1안이 시민단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하시겠습니까? 변동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미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가장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군현 위원 그대로 하시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결정됐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개인적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정책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 개편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군현 위원 유은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저는 초중고 교육만 교육부에서 하고,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300개 넘는 대한민국의 대학을 대학교육협의회라든지 고등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부에서 손을 아예 떼면 대한민국 대학교육이 잘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만들고 좀 더 고등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교육부의 역할이 개편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등교육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오늘 몇 번 지적이 나왔고 자세하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문제, 그 당시 일산 스포츠센터에 들어가실 때 감독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잘 모르겠는데요.

○신경민 위원 저희들이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창섭이라는 이사장이었고요.

그 당시 문화부차관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잘 기억 못하겠는데요.

○신경민 위원 김종 차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 김종 차관님.

○신경민 위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저희들이 기록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잘 아는 게 박근혜 행정부의 실세 차관이었고 또 김종 차관과 뉴멕시코대학 동문인 이창섭 씨는 친박 인사로서 상당히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친박의 실세 두 사람이 유은혜 의원이 사무실을 얻었다는 것

을 보고받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비례대표였던 이 의원이 거기 출마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에 법에 어긋났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선거에서 유은혜 의원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 법률적으로 뭘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만뒀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여기 계시는 광상도 의원 그리고 위원회를 옮겨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 한선교 의원 등 두 분이 자료를 요구한 게 이만큼입니다. 2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용을 이미 다 아는 거지요.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유은혜 후보한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폼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기사가 나게 하고 뭔가 유은혜 후보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것처럼 생채기를 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유은혜 후보가 만약에 뭘 잘못했으면 아마 사무실에서 거의 별거승이로 쫓겨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정황이 여기 자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현안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들의 아주 공통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법이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을 교육감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랄지 이런 걸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손을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고요.

○신경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미투 사건을 보니까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미투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손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맞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것을 좀 빨리 같이 협업을 하

고 나눠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문제가 많은 입시제도 문제, 제가 EBS에서 방영된 특집방송을 한 번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7부작인가 그것을 봤는데 거기 일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의 입시제도는 이번에 고친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입시제도는 도대체 족보를 찾을 길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선진국·후진국·중진국 막론하고 이런 입시제도는 존재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몇 개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입시제도를 가지고…… 이것 보십시오. 저런 반응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십시오.

다음 것 한번 넘겨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종을 해외 전문가들한테 보여줬는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학종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선진국이라는 데 입시사정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놀랍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부 다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일본 사람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걸 EBS 특집에 나온 거니까요. 됐습니다.

이런 족보도 없고 국적도 없고 전 세계에 유일한 입시제도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고 우리 애들을 이렇게 여기에 벌거숭이처럼 내박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22년도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저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정 수고하셨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PPT 좀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지금 의혹이 있는데 실정법 위반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

렵다고 그러셨는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휴일에 지역구에서 기자간담회로 지금 허위신고된 것, 이것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전희경 위원 법률의 부지나 실수에 대한 부분을 논외로 하고 현 상태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도……

○전희경 위원 아닙니까, 허위신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허위신고가 아니고요.

○전희경 위원 기자간담회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이 기자간담회 관련해서는 몇 차례 언론에도 소명했습니다만……

○전희경 위원 언론 소명이 납득이 충분히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가 기자간담회를 안 했는데 기자간담회 왜 있는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내역이 잘못 기재된 것은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잘못 기재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그 잘못 기재된 상태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다음입니다.

당선 후 검직 신고 안 하셨지요, 국회법 위반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우석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희경 위원 예. 국회에 검직 신고 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는데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2014년도에 검직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당시의 국회법은 검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이 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게 허용되는 것으로 2013년도까지는 되어 있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 후에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된 검직 신고 안 하신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14년도에  
겸직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희경 위원 참 단답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실  
만한 것들도 돌아가십니다. 길게 돌아가시네요.  
위반입니다, 국회법 위반.

그다음에 피감기관 건물에 내부규정 무시하고  
입주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았고 앞  
서 과상도 위원님께서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계  
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  
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 부분은  
오늘 국민권익위에서 청탁법 위반이 아니라는 회  
신을 받았습시다.

○전희경 위원 관련 공무원들 징계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추후 질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다음에 남편 사업체 사내이사 보좌진 임용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까 인정하셨지요? 사내이  
사로 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좀 답을 빨리 해 주세요,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로 질의 받으셨잖아요. 이미 다 얘  
기가 된 것을 왜 본인 입으로 그것을 인정 안 하  
고 빙빙 돌리십니까? 위반입니다.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 직무관련 신고  
안 하려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지요, 직무관련성 심사? 받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받지 않았  
습니다.

○전희경 위원 안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과태료 59건은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너무 많다는 게 국민들  
의 눈높이에서의 지적입니다.

일곱 가지 중에 본인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  
고 한 것 하나, 이것도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뭐  
가 도대체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내내 빙빙  
돌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타인에게 엄정한 잣대  
를 들이댈 때하고 불과 후보자 지명되신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순간의 유은혜라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  
니다.

지금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 유아·교육 관  
련 카테고리에 제일 많이 공감한 추천순 탑 파이  
브의 2개, 1등하고 5등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후보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오늘은 들  
어가 보지 않았습시다.

○전희경 위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후보자는 절대 교육부장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5개  
중에 1등·5등, 2개나 차지합니다.

공감대요? 이래 가지고 공감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것 때문에 이런 청원 올  
라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 유은혜 후보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장관은 누가 뭐래도 경질성 문책 인사  
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은혜 후보자의 교육 방  
향, 평준화, 전교조에 있어서 친전교조, 대학입시  
에 있어서 수능절대평가 및 수시 확대,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사고·특목고 폐지, 혁신학교, 김상곤 장관과  
쌍둥이입니다. 뭐가 달라지지요, 대한민국의 교육  
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도덕 면에서, 국민들이 그토록 질타하시는 정  
책방향 면에서 이토록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에 부담 주지 마시  
고 사퇴하십시오. 자진사퇴가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답변  
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세정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교육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에 포함돼 있는 정책이고 방향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김상곤 전 부총리에 이어서 제  
가 맡게 된다면 방향에 따라서 속도는 조정해 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속도의 조정이 현안  
에서 잘 조율되지 못했던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정말 이 자리에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엄정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고의성을 갖거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실수와 그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세정 감사합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왜 안 그러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오세정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딸 입학 관련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어떤 후보자가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중구 남산동으로, 다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다가 중구 필동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다가 중구 예장동으로, 강남구 논현동에 살다가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그리고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주소 이전입니다. 첫째 딸 리라초등학교 넣으려고, 둘째 딸 리라초등학교 넣으려고, 셋째 딸도 아들도……

저는 오늘 위장전입 이야기를 하는데, 유은혜 후보자? 유은혜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딸 8학군에 넣고 싶어서 주소가 바뀌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딸 중학교는 일산에 있는 중학교 다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거주하는 곳에서 중학교·고등학교 잘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 때 당시 행자부에서 그런 보고를 합니다, ‘간첩 색출하기 좋을 겁니다’라고.

우리는 아이 키우면서 그 아픔, 그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 때 안 그랬으면 훨씬 좋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몰아붙일 내용……

“지난번에는 왜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후보자들 8학군에 가서 내 새끼만 좋은 학교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주소 이전해서 좋은 땅 투기하고 좋은 아파트 가져오려고 하는 후보자들에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부메랑으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일산 주변에서 주말에 쓴 정치자금 내역입니다.

후보자에게 질의합니다.

국회의원은 같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수행 보좌진들과 함께 그리고 같이 현안을 논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찬을 할 수 있다고 정치자금법에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하는 수행 그리고 활동하면서 같이 다니는 정책 관련한 현안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고, 선관위가 밝혀 주는 내용이니깐 그것을 마저 확인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모 언론에 나왔던 ‘정체불명의 8500만 원, 커지는 의혹’ 이것에 대한 질의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사실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가 답변서 보니까 ‘월급, 국회의원 세비 그리고 특강, 방송 출연료가 보태진 것이다’ 이렇게 엄연히 이 책자에 자료로 답이 나와 있던데, 이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별한 불로소득이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은 허위사실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허위사실은 확실하게 짚어 줘야 합니다. 가짜뉴스도 확실하게 짚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감기관 입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봐도 그 피감기관에 그 당사자는 제가 보기에는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약한 고리였던 그 사람들은 호되게 징계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무실을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의견서를 보냈다고,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입주자에게 그런 의견서를 자기네가 보낼 수 있냐고?’ 저는 이런 내용만 조금 확인해도 충분히 후보자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세정 간사,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정책질의로 가겠습니다.

저는 중랑구 변두리에 삽니다. 저는 중랑구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8학군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우리 교육에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부터 평등한,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이미 만들어진 제도도 있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1~2년 사이에,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 개혁의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적 혹은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교육기회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법제도적인 대안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되시면 부지런히 뛰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부지런히 일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한표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문중 위원 장관후보자에게서, 아까 여러 위원님도 제가 질의한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2020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에 다시 출마하실 거냐 여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떤 위원님은 ‘1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특히 교육부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장관후보자에게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이 직에 임하는, 물론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을 맡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말하는 선거공약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교육 정책이든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교육부에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정말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여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출마하는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쿨하게 나 1년만 하고,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그다음에 나는 다시 정치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본인이 말씀은 못 한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보자께서 본인의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됐다, 여기 청문회장에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잘하지 못한다면 사실……

○홍문중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총선의 회기가……

○홍문중 위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본인의 각오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본인은, 나는 이제 이것을 내 커리

어 쌓는, 앞으로 1년 동안 부총리 했다는 것으로, 다음 정치적으로 내가 이렇게 또 한 번 전진하기 위한 어떤 경력 쌓기용으로 교육부총리,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습니까만 결국 그렇게 돼 버리고 마는 교육부총리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교육부에는 큰, 말하자면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도 마찬가지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맞습니다.

○홍문종 위원 교육부장관 하신 분들, 1년 동안 하신 정치 장관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1년 동안, 뒤에 계신 공무원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한테 1년 동안 뽕뽕이 돌다가 도대체 아무것도 못 하고 결국은 교육부장관을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여러 번 토로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님들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쯤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이 직을 맡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홍문종 위원 만약 1년 2개월이면요, 죄송합니다만 취임하시는 순간 레임덕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냥 교육부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당일 때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다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교육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육의 백년대계가 어떻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1년 후에 ‘아, 나는 정말 빈손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나오는구나’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답변은 그만 그 정도에서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이라는 분 아시지요, 김영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영란 위원장님 말씀.....

○홍문종 위원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홍문종 위원 김영란법으로 유명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홍문종 위원 이번에 대학입시 또 말씀하셨지요? 김상곤 장관께서 거기 앉아 계실 때 김영란이라는 분이 대학입시에 관해서 어찌고저찌고 얘

기할 때 ‘본인이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발표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장관되실지 모르셨을 테니까.....

지금 김영란이라는 분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다 임명한 분이고 교육부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분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한 분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론화위원장을 맡고 계셨지요.

○홍문종 위원 그런데 교육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학입시에 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할 수도 없었고 기본적인 정보를 줄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진행 과정에서 자기들이 피드백을 또 받을 수도 없었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청와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지우지한다? 물론 대통령중심제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간이.....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섭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고 지금 국민들 여론이 어떻고.....

김영란이란 분이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대학입시에 대해서 모든 공론화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분이 거기 가서 교육에 관계없는 분들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런 데 대해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교육부 입장을 대변하고 학부모 입장을 대변하고 교사들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한표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순서로 질의를 할 시간인데 위원장석에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한신대학교, 우석대학에서 재직하셨는데 우석대학에 재직하신 2년 간 강의는 한

학기만 개설되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장대리 김한표 나머지 3학기는 아마 당선 되어서 가지고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조교수로 승진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승진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겸임강사라는 강사 명칭을 쓰지 않고 조교수·부교수라는 명칭으로 바꿔 쓰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아, 조교수…… 명칭이 바뀌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장대리 김한표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해 봤지만 제가 다닐 때는 조교수로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많은 연구 업적이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조교수로 승진했다고 하는 것 보면서 제가 초고속 승진 아니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용어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리고 저는 전임이 아니어서요.

○위원장대리 김한표 아니, 그런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빌리자면 2016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훨씬 그 전의 일 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

○위원장대리 김한표 2012년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사이에 바뀌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한표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 임기…… 그러니까 강사직에서 조교수, 부교수인가요? 2012년 7월이라고 하는데요.

○곽상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석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용어가 바뀌었다고 자료를 받았습시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지금 우석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좀 선명치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2012년 7월

이라고 확인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이것은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 2분 반 정도 남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에 당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통보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장대리 김한표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셈인데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을 담보할 수 없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때와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입장이 장관직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어떤 정책보다 정치적으로 독립해 있고 또 이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 직을 맡게 되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교육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대한민국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 정책 입장을 꼭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더미래연구소 이사직 지금도 맡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얼마 전에 이사직 사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언제쯤 사임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명된 이후에 사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그래서 인사청문요청안에 그것을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인사청문요청안에 지금도 이사직 맡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좀 전에 사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그 시점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지명받은 이후에 이사직 사임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는 다음 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좀 전에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고등교육법 조항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11년 7월 21일 날 개정이 돼서 그 개정의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서 그 전에 있던 강사라는 조항이 빠지게 되고 시행은 그 뒤로 1년 뒤에 2012년 7월 21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라는 것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되는 문제이니깐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석대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교수 그러면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그냥 일반 교수로 막 섞어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은 따로 있고 지금 후보자가 한 겸임교수는 비전임교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교원은 정년이나 신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과 달리 학교마다 2년 계약이나 3년 계약 단위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는 각종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보자의 우석대 비전임교원에 대한 계약은 2년으로 돼 있었던 것이지요? 최초 계약은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거기에 아마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었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조승래 위원 강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강의는 한 학기만 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비전임교원에 대한 보수나 급여는 강의를 했던 한 학기에 해당하는 한 160만 원 상당인가요, 그 정도의 강사료를 받은 것이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석대 측으로부터 그 어떤 보수나 수당이나 강사료를 지급 받은 적은 없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4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겸직,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입니다. 겸직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변화가 생기는데 2014년 2월 14일 이전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그 이후에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국회법 기준과 당시의 국회법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공영형 사립대라는 것이 교육부나 정부가 모든 사립대학에 공영형 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조승래 위원 당연히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학의 의사결정,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나 당국에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맞습니다.

(김한표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승래 위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든지 설립자 정신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그 대학과 법인 이사회의 선택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배우자의 인쇄소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녀 달에 걸쳐서 한 480만 원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수당인가요? 수당이겠지요? 영업을 했으면 영업수당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영업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 영업수당은 후보자의 공보물

이나 의정보고서의 인쇄와는 전혀 관계없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어떤 잡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잡지의 영업을 한 영업수당의 성격이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도 4개월간 영업수당을 받고 그 이후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등등 여러 가지 위반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뭐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 불법 위반이라고 결정된 바도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우석대 겸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의 국회법 제29조 3항에 보면 강사를 포함해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그 계약기간 2년에 있었지만 그 겸임 강사직은 휴직되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따라서 당시에 겸직 미신고로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은 당시의 국회법을 적용해 보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 여부 때문에 잠시……

○위원장 이찬열 추가질의를……

○전희경 위원 후보자, 여기서 거짓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박용진 위원 일문일답 하지 마시고요.

○신경민 위원 질의 때 합시다.

○전희경 위원 분명히 그 당시 4항 규정에는 신고의무 있었어요. 자꾸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

시면 어떡해요?

○위원장 이찬열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3분 진행하니까 하다가 탁 끊겨 가지고 계속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어차피 물어야 할 거니까 한 5분씩 하십시오.

○위원장 이찬열 조승래 간사님,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좋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김한표 간사님 합의에 의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위원 후보자 사무실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후보자 사무실 도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변경 전이 2015년 12월 이전입니다. 그 당시는 후보자 사무실이 저기 보는 것처럼 202호, 166평이어서 이게 넓어 가지고 입찰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열여덟 차례인가 열아홉 차례인가 입찰이 되지를 않는 그런 상태였다가 여기 체육센터에서 2015년 12월 달 9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우측에 보는 것처럼 202호를 운영사무실과 202호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이 센터에서 입찰공고를 하는 건 203호를 입찰에 부칩니다. 203호에 대한 입찰을 했다가 후보자가 낙찰이 되니까 후보자 쪽에서 낙찰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202호에 대해 새로 입찰 절차가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걸 날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한번 내 보세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후보자가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질의를 합니다, 스포츠센터에 대한 민영화 반대 입장입니다.

이 스포츠센터 민영화 반대는 이 스포츠센터

직원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13, 14, 15년 연속 질의를 했고 2015년도 6월 5일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사무실에서 만나서 반대하는 입장을 또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6년 2월 2일 날 스포츠센터 203호, 이것은 본래 아까 보여 드린 창이 없는 닫힌 공간의 사무실을 입찰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후보자가 입찰을 봐서 2월 15일 날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2월 15일 날, 당일날 낙찰을 포기합니다.

이 낙찰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일보 기자가 유 후보자 관계자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계약하러 갔는데 203호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어서 입찰보증금 페널티 85만 원 내고 포기각서 썼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쪽 담당자가 그럼 알았다고 하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그 담당자가 어떻게 해 줘야 하면 그날 스포츠센터에 19차로 202호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를 내줍니다.

이 긴급입찰 공고는 지금까지 스포츠센터에서 한 번도 한 적이, 70회 입찰을 하면서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 긴급입찰 공고를 당일날 이렇게 해서 2월 22일까지 입찰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줍니다.

3월 3일이 개소식 예정이니까 2월 22일까지는 해야 개소식이 준비가 될 모양이지요. 이렇게 정리해 주고 나서 202호에 대해서 2월 23일 날 낙찰이 됩니다. 이 낙찰이 11시에 개찰인데 10시 38분에 SNS에 개소식 장소 안내가 뜹니다.

당초에 후보자 쪽에서 설명하기는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 알려줬다, 이게 특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도 개찰에 대해서 개찰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서 이 내용을 들었는지 질의를 했더니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이 얘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어떤 말씀이지요?

○곽상도 위원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는 그쪽에서 알려 주더라’ 이렇게 신문기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잘못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개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누가 했는지……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이게 이렇게 해명한 게 실수지요,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 알려줬다 얘기한 게. 그런데 그 유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님한테 묻지를 양지 않습니다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곽상도 위원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 알려줬다, 이게 특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면에 보면, 아까 보여 주신 도면에 보면 전부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조그마한 글씨로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사무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도 1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서를 바꿔서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한 부정당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또 임대 운영지침에도 없는 현수막을, 선거 현수막을 2개나 설치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런 규정에 어긋나도록 입찰을 해 줬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규정 위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라고 우리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임대 규정 위반했다는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임대계약 중도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입찰 과정의 이런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권익위의 통보를…… 뭐 어떻게 법률 해석이 문제가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 이쪽에서 질의할 때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또 ‘우리 부에서 제출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면’ 이렇게 해서 혐의가 없다는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법한 공개입찰 절차에 따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년간 18회에 걸쳐 유찰돼서 받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위원장 이찬열** 자,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자기 답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제가, 모든 의혹이나 문제 되는 걸 다 전제를 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답변을 들고 국민들 앞에 와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해야지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열** 곽상도 위원님, 추가질의를 더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찬열** 간사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조승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PPT에 ‘타월한 범죄적 감각과 조작 소동력’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조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열** 곽상도 위원님, 참고를 해 주세요.

○**곽상도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경미 위원** 후보자는 학교 안전·환경 전문가인 만큼 최근 학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공기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 소재 학교들의 2017년 공기질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딱 한 곳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12개 항목 모두 모든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는데요. 기준치를 초과했느냐의 여부만 가지고 본다면 현재 학교의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실제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우선 미세먼지 PM10의 경우 일평균 기준치가 100 $\mu\text{g}/\text{m}^3$ 인데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99.5 $\mu\text{g}/\text{m}^3$ 로 나타났고요. 99.4, 99.3 등 이렇게 99 $\mu\text{g}/\text{m}^3$ 를 넘는 학교가 5개, 그다음에 90 $\mu\text{g}/\text{m}^3$ 를 넘는 학교도 170곳

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에 근접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WHO 권고기준은 일평균이 50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치인 100 $\mu\text{g}/\text{m}^3$ 는 너무 느슨한 기준인 거지요.

아직 학교 미세먼지 기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은 75 $\mu\text{g}/\text{m}^3$ 인데 75 기준치를 적용할 때 초과된 학교가 무려 492개교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PM10의 상황이고요.

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폼알데하이드의 경우도 기준치가 100 $\mu\text{g}/\text{m}^3$ 인데 90 $\mu\text{g}/\text{m}^3$ 을 넘는 학교가 6개, 또 이것 역시 환경부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새로 설정하게 될 기준인 80 $\mu\text{g}/\text{m}^3$ 을 적용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이것도 18개나 되고요.

또 총 부유세균이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치명적인데 기준치 800CFU/ $\text{m}^3$ 를 기준으로 볼 때 700이 넘는 학교가 216개교나 되고, 그러니까 기준치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심각한 학교의 공기질 상황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후보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공기질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는데요. 공기질 측정시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기질을 연 1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경미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또 하나의 문제가 최종 측정치만 기재하게 돼 있는데 첫 측정치부터 그 이력을 모두 기재하고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학교의 공기질 개선하고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책, 가능하면 포괄적인 종합대책이면 좋겠는데 생각을 밝혀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질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많이, 최근에는 더 많은 관심과 또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기질 측정 시에 학부모님 참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석면 제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관리 전반에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요. 최소 1회 이상은 공기질 측정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법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공동의 이런 대책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해 오신 만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후보자님, 제가 아까요 교육부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지를 그렇게 강하게 갖겠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부 개혁과 관련해서도 자율에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인사를 위촉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기관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 어찌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2015년 꼴찌, 2016년도 꼴찌, 2017년에는 좀 나아졌지만 하위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이렇게 되고요. 국가공무원 부처별 범죄 현황도 보면 2015년에 5위, 2016년에 2위, 2017년에는 3위 이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겠습니까마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대학, 대학병원, 초·중·고교 등에 대한 감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곳에 이런 그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자율에 맡기겠다’,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들어도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은 외부위원을 위촉·초빙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외부기관에 맡기

는 등의 노력과 함께 동시에 자구안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부진하다고, 미진하다고 만날 지적받고 그래요.

이 교육부의 경우에 더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이 굉장히 층이 넓지 않습니까? 학교의 교사들까지 다 교육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교육부 자체의 조직 쇄신만을 가지고는, 우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이나 또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교육 주체들, 학교 현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혁신하지 않으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나 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저희 내부의 출발에서부터 좀 혁신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자구책만으로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교육 개혁·혁신 이 두 가지로 스스로 역할을 규정하신 만큼 다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후보자께서는 교육부장관 이면서 동시에 첫 여성 사회부총리입니다. 사회부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갖게 되는 여러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가 교육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경우에 교육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의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대처를 잘 못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면 교육부의 문제이지만 ‘나가!’ 해 버리면 이제 사회 문제로 나가 버립니다. 학교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몰라’ 되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내보내지요, 학교 밖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신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치료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교과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훈련과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학생을 심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상담하고 하는 훈련들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상처가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다 이전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이러한 것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직 교사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센터 구축 이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대책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러니까 학교 내 교사들의 심리치유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진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대응을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부처상으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사회부총리직을 해야 하는 만큼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면 학교 밖에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 이탈이나 이런 것들 없이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장 이찬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간단하게끔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문제와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생들의 심리 치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나 상담사들이 학교에 최소한 1명씩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생각인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박찬대 위원님, 제 질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박찬대 위원님이 가장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박찬대 위원 바로 뒤 순서라서……

○김현아 위원 저는 후보자님이 되게 부럽습니다. 여당의 아주 스마트한 남자 위원들께서 의원님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고 계셔서 저는 내심 굉장히 많이 부럽습니다.

제가 남편분을 자꾸만 거론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허위, 그러니까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자꾸만 여쭙어보는 것이고요. 몇 가지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이것 다 끝나면 정책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을 때 빨리 답변하셔서 이 질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약간 답변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면 남편분이 모 경제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매출이 한 해 6억이 나온다고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요청한 국세청 자료를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저기는 매출신고를 연 2000만 원으로 해서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국세청 자료는 2012

년에 539만 원, 2013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요.

또 이 회사가 조금 재미있는 게, 이 회사의 원래 처음 설립자로는 지금 의원님 방에 있는 오 모 비서가 처음의 설립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번에 알았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번에 아셨고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 회사를 남편이 인수하셨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그 지분이나 누가 대표자였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랐고요. 그래서 오 비서는 거기서 근무하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지 여기에 사내이사나 지분관계나 이런 것은 제가 사실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내이사는 해임을 하셨는데 왜 국회 내에서는 지금 사임하지 않은 상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무슨 절차요? 윤리위에 가서서 파면 당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요, 검직……

○김현아 위원 이 검직이 인정되면 파면입니다. 그렇지요? 검직 인정되면 파면이에요.

그러면 아닌 걸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왜 이 비서를 지금 해임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 제가 해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아 위원 예, 그게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파면 당하는 것보다는 해임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임의 사유가 되면 해임을 해야 되겠지만……

○김현아 위원 그 얘기는 해임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 왜 그렇지요, 검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실수도 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실수도 법 위반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고의성을 갖거나 이 검직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검직 금지를 하는 이유가 그 검직 자체가 재산상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

○김현아 위원 후보님,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 다른 의원님들이나 보좌진들이 다른 데 검직을 할 때 이 기준은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물론입니다.

○김현아 위원 수입이 없으면 그러면 검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이 검직 금지 조항을 어겼던 그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했고 그리고……

○김현아 위원 뭘 신고를 해요? 저희가 발견해서 알게 됐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사직을 사임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검직 신고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받아야 되는지를 국회에 지금 제출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후보자께서 장관후보자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실수라고 인정하셨으면 해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실수이고 잘못은 있지만 그것이 해임사유가 되는지, 어떤 사유가 되는지는 더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윤리위 판결 결과를 보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국회 보좌진들이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

각돼서 저도 유심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지적해 주신 저희 남편 회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김현아 위원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열 답변하실 게 있나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있습니다.

먼저 저희 남편의 매출 관련 인터뷰, 6억 기사 그것은 저희 남편의 인터뷰가 아닙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출처가, 기자가 없습니다. 환경뉴스 닷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런 매체의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의 기억으로는 후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런 기사가 어떻게 실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매출액을 6억 올린다는 것은 6억이 단정적으로 올린다가 아니라 6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기대치로 이야기했다는 게 그 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 10월인가요? 이미 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이런 상태에서, 매출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신고의 참고기록인 매출액이 계속 2000만 원으로 반복적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아까 박찬대 위원.....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다음은.....

○김현아 위원 후보자님, 그러면 재산신고에 우리가 참고자료를 예측해서 넣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그것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국회에서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과 김현아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수로 하는 법 위반도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 위반이 없으면 좋겠지만 법 위반이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청문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볼 때는 아마 중요성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 회계기준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의 경중이나 중요성을 보지 않고 단 한 차례의 회계처리가 아주 미미하게 잘못됐다 했을 때 그게 바로 분식회계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했을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오 비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그런 말이 있었지요.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을 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내면 매출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한 540만 원 정도가 신고가 됐고 2013년에 보면 990만 원 정도가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농어업을 주로 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세 신고하려고 그러면 과세분으로 신고하면 안 되고 부과세 면세분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또 과세분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법인세 신고랑 관련해서 서류 도처에 이러한 실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매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휴업 상태였고 그리고 나중에 직권폐업을 받게 되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청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청산 과정이라는 게 뭔가요. 잔여재산을 다 처분해서 현재 남아 있는 부채를 다 갚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절차가 청산인데 지금 이 회사의 매출 상태를 보게 되면 청산 과정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류상의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그러한 행정상의 실수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 비서가 행정상의 이러한 절차를 다

밟지 못했지만 사실상 청산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회사의 등기부에 그냥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공무원 업무하고 겸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같이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위기라는 말이 어제오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우리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교육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교육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 오전 중에 질의도 있었는데 우리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님께 한번 물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용국가 개념 역시 국민 단 한 사람도 국가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게 가고자 하고 그 출발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지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매년 4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약 40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생이라는 이름을 달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부 추측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여가부에서 일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사실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제도 외에서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한 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대안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것이지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교육부가 학교 밖의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분명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답변은 나중에 드릴까요?

**○박찬대 위원** 아니요, 제가 마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질의 시간 달라고 하면 다 줘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찬열** 타이밍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찬대 위원님이 후보자를 너무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같이 저도 보여집니다.

**○박용진 위원** 안 그래요.

**○위원장 이찬열** 안 그렇습니까?

**○박찬대 위원** 국민적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찬열** 참고로 여기 이재정 의원님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위원의 마음은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신명 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누군가의 허물을 캐내는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청와대에서 보낸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보면 유은혜 후보자께서는 무려 10년 동안 당의 부대변인, 대변인을 맡아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그 대변인으로 일하는 10년 동안 후보자께서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논평이나 또 더

더군다나 의원이 되어서 하신 내용 그것을 놓고 볼 때 오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유은혜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것은 이중성입니다. 타인에게는 냉혹하고 냉정하고 나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그것이 도덕 유무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실정법 위반에 있어서도 왜 유독 유은혜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공분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동안 유은혜 의원께서 야당 의원의 역할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 본인이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대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인정할 것은 명쾌하게 인정하는, 이 자리에서, 심지어 이 자리에서 거짓 말하시면 위증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 대상이 됩니다.

자, 국회법 같은 경우만도 보시지요.

2012년 당시에 국회법에, 제가 질의에서 뭐라고 후보자에게 질의를 드렸습니까? 2012년 국회법은 겸직에 있어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입니다. 지금 현행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지요. 그러나 2012년 당시에 국회법 29조 제4항은 신고 의무에 대한 명시, 의무조항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런데 여기 겸임 강사직은 휴직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희경 위원 휴직된다, 자꾸 3항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국회법 29조 4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29조 4항 명확한 그 범규정도 안 보세요? 뒤에서 뭘 자꾸 드리는 겁니까? 4항 좀 드리세요, 후보자의 입맛에 맞게 3항까지만 잘라 드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명쾌한 내용도 왜 자꾸 빙빙 도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후보자가 걸어오신 길에 대한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 자리를 통과한다면 어떻게 정책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후보자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의원직을,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의원 자리로 저 자리에 계셨으면서 국민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야당의 위원들이 거듭거듭 드리는데 그 명백한 사항도 마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몰아잡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지금 지적된 사항 중의 많은 부분에 후보자의 민주화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화, 좋습니다. 민주화운동 열심히 하셨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가 가교가 되어서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성공회 종교시설에 위장전입하고 그리고 우석대라는, 공천심사위원회 하신 분이 총장 하시고 그리고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드실 그 총장 당시에 개소할 만큼 그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던 분, 그런 분들이…… 본인은 휴직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면 그 상태로 2년 경력이 바로 나올까요, 학교 측에서 가만히 뒤서? 아닙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전임강사에서 누구도 더 듣기 좋은 조교수로 명칭 변경까지 있었는데 왜 학교에서는 그걸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민주화 감질이요, 민주화 특혜라는 겁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이로운 처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직은 그런 현상은 없었는데 잘못하면 시간이 흐르고 다들 피곤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부드럽게, 지금까지 잘들 해 주셨으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제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상도 위원의 질의에 따르면 사무실 유찰과 낙찰을 사전 모의해 가지고 유 후보자가 그 당시 치밀하게 기획을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

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무실 입주할 때 그런 실무적인 하나하나의 세세한 내용들은 아마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하나하나의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몰랐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어떤 특혜를 베풀기 위해서 진행했던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많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세 분 의원들의 자료가 나왔고 감사가 있었고, 그 뒤에 그쪽 일산 스포츠센터에서는 감사도 받고 이러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법률회사 세 군데에다가 법률 자문을 요청했더라고요. 이것도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거기 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세 법률 자문을 받은 쪽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보고 문건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이 모 국회의원후보인데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무실 외벽에 현수막을 한참 동안 부착을 못 했더라고요. 그때 못 하셨지요, 며칠 동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거방해죄로 처벌되고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하면 그 센터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하여튼 선거방해 행위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도 할 수 없이 선거현수막을 달게 해 줬다는 기록이, 이것도 다 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당시도 그렇고 2016년 감사 때도 그렇고요 유 후보, 유 의원을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고요. 그것을 교문위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위원들이. 그런데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거고 언론이 또 굉장히 선정적으로 달려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흠집을 세계 낸 겁니다. 흠집을 당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희경 위원이 제기하는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19대에 들어왔는데 19대 전까지는 검직을 다 했어요. 변호사, 의사, 교수, 사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그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

래서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일단 다 몽땅 그만뒀라라고 해 가지고 연금도 없어지고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바뀌고 그 정신에 따라서 법이 최근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석대 입장에서는,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잘 아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겸임교수라는 것은 그쪽에서는 굉장히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였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걸 확인해 보나마나 분명할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으니까 확인을 잘 해 보시고, 위법했다고 막 그러는데 위법인 부분도 있겠지만 위법이 아닌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실대학 판정이 난 데가 많은데요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평택대 조기홍 전 총장, 목원대 그리고 경인여대 이분들은 학내에서 교수들이 학내비리 고발해서 교육부 감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까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수들이 용감하게 지적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부실대학 판정을 받았습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수들이 용기를 내서 휘슬 블로잉(whistle blowing)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안에서 말하자면 나쁜 사람들, 비리나 밖에 가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로 되기 때문에 못 하지요. 이런 용기 있는 제보자들,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똑같이 교육부가 감사해서 밝혀낸 경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경우는 좀 차등을 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대학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제안센터로 접수가 돼서 비리를 조사했고 부정·비리가 확인된 곳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내부고발로 적발된 대학을 감안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휘슬 블로잉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내부고발에 대해서 감경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적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취지를 잘 수용해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상대 위원님들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가 직접 대답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해명을 해도 후보자가 해명해야 되고 토론을 해도 후보자와 그 문제를 제기한 위원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뭘 어떻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후보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답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홍문종 위원** 오늘 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으면 아마 야당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 위원님들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후보자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전교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서면답변을 보니까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났고 그다음에 노동부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홍문종 위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전교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의지, 지금 그것에 관해서 본인이 옛날에 국회의원 25명하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었지요?

제가 보니까 2013년 10월에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하자 당시 야당 의원 25명과 함께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홍문종 위원**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답변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전교조는 우리 학교 현장의 교육을 바꿔 내고 또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와 혁신학교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다른 평가와 이견들도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도 있고 비판도 있는 이런 상황임을 알고 있고요.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역할해왔던 것에 대해 평가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교육부장관의 위치에서 한 교사의 단체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 법적 문제가 해소가 되면 한국교총과 전교조 이런 교사 단체들의 이해관계나 갈등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홍문종 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로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북한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직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은 남북한 학교 자매결연, 수학여행 등을 공약했고요. 인천시교육감은 ‘개성 수학여행 등 역사 교류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에 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없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홍문종 위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요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인 '평화·통일 교육' 개정판을 18년 8월 발간했는데,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했다'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는데, 중요한 것이 삭제한 것을 통일교육원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합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도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홍문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통일교육원 사항은 제가 자세히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관련해서 그 집필 기준을 대강화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다 하신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정책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달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데 1·2학년은 방과 후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제가 보니까 유 후보님은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에 찬성 입장을 취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인터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찬성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공교육 정상

화법에 초등학교 1·2학년은 영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1·2학년 영어 수업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김한표 위원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이 선행돼야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안정만을 위해서 이미 정해졌거나 방향을 잡았던 교과과정을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반대 때문에 이것 지금 후퇴했잖아요? 유예시켜 놔줬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입니다.

○김한표 위원 유치원 방과 후고,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 후 영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유예시키니까 못 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초등학교 1·2학년은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없어서 못 한 거고요. 유치원 방과 후 영어는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요구들이 높아서 1년을 유예하고 그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중에서 경제력이 좀 있는 그런 학부모들은 이미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영어 교육이요?

○김한표 위원 영어 교육.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그런데 저 농촌에 있는 학교라든지 가정이 어려운 학부모들은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2학년도 방과 후에 공교육 차원에서도 이걸 좀 시켜 줘야 빈부 격차도 해소되고 또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교육 혜택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것 괜찮을 텐데



왜 이것 자꾸 못 하게 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런데 영어 교육의 시작 시기와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을 하고 난 이후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공교육 정상화법이 3학년으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법적 제한을 갖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요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숙려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도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과도 좀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유 후보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런 정치 철학이나 혹은 인생을 보면 이것 전부 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그다음에 유치원, 능력 있는 학부모들은 벌써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 다 실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한테도, 이런 학부모들에게도 영어 교육은 조기에 실시해서 교육의 격차라든지 특히 소득 격차, 빈부 격차를 좀 줄여 가는 그런 통 큰 정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과 같은 어린 시기에 아이들의 성장, 창의력이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일까, 꼭 영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놀이나 체험이나 또 어떤 공동체적인, 학습이 아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한표 위원 다른 것은 제가 다 받아들이고, 지금 영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시면 시간도 또 부족하시니까 영어 교육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의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숙려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나 또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수렴되어야 되는지를 잘 살피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우리가 국회법에 겸직 금지 관련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2014년인가요, 14년 2월 14일 날 시행됐던 국회법 개정안 이전 법에 보면 29조 3항과 4항이 충돌이 되는 듯한 인상을 줘요. 3항에는 교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경우에는 휴직된다’ 이렇게 3항이 되어 있고, 4항은 교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직을 유지했던 것은 신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항은 신고하게 되어 있고 3항에는 교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만 특별하게 3항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원은 예외로 두고 교원은 어쨌든 당선됐을 경우에 의원생활을 할 때 휴직된다라는 것으로 봐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시 해석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조항은 그다음에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회법 3항과 4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 비서와 관련해서 이분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겸직 금지를 위배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파면이나 해임에 상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도의 징계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지금 현재 국회사무처에 자진신고를 했고 국회 감사관실에서 위배 정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고해서 감사관실에서 판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 판단에 따라서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보통 정계는 파면·해임부터 견책이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 양형 기준에 보면 최저 견책, 최고 파면·해임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등등의 정상을 참작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수위가 정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 수준이 정해지는 대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초등 1·2학년과 관련해서 후보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2014년인가요, 2014년에 당시 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공교육 정상화법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초등 1·2학년에 대한 영어수업을 금지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나 다만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물론 교육부장관후보자도 또 교육부도 방침을 정해야 되겠지만 관련된 법안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이때 교육부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렇게 적절하게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조승래 위원** 그때 교육부는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 교육의 적정한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해외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각종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때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서 국회에서 판단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오늘 민주당이 검증받는 거예요

아니면……

○**조승래 위원** 예?

○**곽상도 위원** 오늘 민주당이 검증받는 거예요, 유은혜 후보자가 검증받는 거예요?

○**조승래 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저는 지금 정책 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권위가 장관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는 국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따를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검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까 이것은 민주당 검증이 아니고 국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국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이것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못 한 것까지 넉넉하게 쓰세요.

○**오세정 위원**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입니다.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유은혜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지명하면서 6년간 교육 상임위에서 활동하였고 이 활동 때문에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해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라는 중책에 임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년 동안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교육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점을 가지고 활동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6년 동안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한 150여 차례의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70건 이상이 교육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 우리 교육이 대학입시 중심의 이런 경쟁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전환시킬 것인가에 많이 고민을 뒀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확실한 하나의 방안으로 찾아가지는 아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뭐 다들 고민하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

이 유 후보자께서 그동안 발언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조사해 봤더니, 물론 문화·체육에 관계된 건 빼고요. 봤더니 많은 내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학교 비정규직 문제, 세월호 문제, 교장공모제 이런 것들이 많고 오히려 수능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문제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나쁜 이유 중의 하나가 대선 때 공약하고 실제로 지금 하는 것하고 다르다, 방향이 막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자료냐 하면 사격세라고 알고 계시지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특히 민주당 그쪽의 정책하고 굉장히 많이 공조하고 있는 집단이었는데 이번에 공론화하고 난 다음에 ‘망국적 대입제도 바뀌야 된다’, ‘문제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파기한 책임을 지고 김상곤 장관 퇴진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대쪽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이것을 상대평가로 계속 유지하고, 정시 비중에 대해서 확대 유도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창의성·다양성, 이렇게 입시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 가지고 또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입시에 올인하니까 사실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이것도 내신 절대평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내신 절대평가도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도 굉장히 핵심적인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으로 미루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정책이 결정됐으니까 한다고 그러셨지만 저는 철학을 갖고 청와대나 수석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맞는 건 맞다고 밀어붙여야지만 국민들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공론화해서 지나가고 하는 과정에

나온 것을 보면 원래의 철학과 방향하고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요? 아까는 속도가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방향도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면 사격세가 걱정하는 식으로 오히려 그냥 교과 단답형, 교과 사지선다형·오지선다형 문제에 올인하게 되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러니까 철학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입시를 둘러싸고는 너무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큼니다.

만약에 발표한 대입제도가 있는데 제가 장관이 돼서 임기 중에 또 다른 대입제도를 발표하면 저는 그것이 학교현장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된 입시제도를 공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틀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세정 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공론화를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학종이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오세정 위원 그러면 학종의, 그 학생부를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해야지 이걸 수능으로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수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다 그러면 다음에 걱정하실 문제는 수능을 5지선다가 아니라 서술형이 돼서 조금 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걸로 수능을 어떻게 더 개선할까 그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오세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능의 문제를 좀 더 창의성,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장관후보님께서 혹시 IB라고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체 창의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다 절대평가 하고 논술형 하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만 수능이 객관식이고 상대평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일본까지도 지금은 서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뒤쳐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한다는 게 그냥 공정성인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유효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더라도 창의성 이런 걸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2022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서도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안들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학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세정 위원 저도 그건 봤는데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오세정 위원 그것을 좀 더 국민들이 액셉트(accept)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하고 서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논술형으로 시험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교과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의 방식이 다 바뀌어야 되고요. 준비도 필요하고 시행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분명히 방향은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방식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오세정 위원 일본은 그것 바꾸는 데 한 10년 동안 토론하고 바꿨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한 십여 년은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급하게 수능으로 그냥 가 버리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딱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8.9%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을 보면 43%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대학진학률이요?

○위원장 이찬열 예, 고등교육, 전문대학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대학들이 재정 때문에, 재정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OECD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약 25.9%,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0% 정도가 지금 학령인구보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대학들이 겪을 고충은 아주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학교도 많이 축소가 될 거고 방향도 많이 바뀌어 될 거고, 이렇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해 장관후보자로써 앞으로 대학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인구절벽 시대에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대학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했고 이게 계속 구조개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 필요한 대학들은 또 우수한 대학들은 더 지원하면서 그리고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없어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다음번 3주기 대학평가와 관련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서 구조개혁이 급격하게 현장에 어떤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게 그건가 저건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제가.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 고등교육기관 중에 38개교를 줄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38개교를 선정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난 2015년과 18년의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기준이 많이 달랐고 적용이 좀 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어떤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진학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우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 폐교될 수밖에 없는 학교들은 또 폐교대책을 세워서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들이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21년의 대학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과 절차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지금 후보자님께 질의를 했는데 제 질의에 맞는 답변입니까? 그건 판단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해가 힘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마 재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칼을 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은 쉬는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바로 소위원회 회의실에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두 번째 추가질의를 해야 될지, 주질

의로 들어가서 한 바퀴 더 돌아야 될지, 간사님도 아직 안 나오셨는데……

일단 광상도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님 하실 거고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그다음에 박찬대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

그러면 광상도 위원님부터 두 번째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광상도 위원** 아직 멀었어요.

○**조승래 위원** 3분으로 하지요.

○**광상도 위원** 아직 멀었다니까요. 계속 돌아야 되는데 얘기가 끊겨서……

○**위원장 이찬열** 아니, 계속 돌고 나중에 하실 분은 혼자 계속 하시고……

○**광상도 위원** 아니, 끊겨 가지고 질의가 잘 안 됩니다. 끊겨서……

○**위원장 이찬열** 그건 그 시간에 맞춰 주셔야지.

○**광상도 위원** 그 맞추는 게 능력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5분 괜찮으시지요?

○**광상도 위원** 어차피 밤 12시고 1시고 끝까지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5분이 되면 어떻고, 관계없잖아요?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그러면 광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후보자님, 지역구 사무실 임대보증금 납부하고 관련해서 보증금도 다 내고 월세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해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자격자한테 아파트를 분양해서 무자격자가 분양받은 뒤에 아파트 분양대금 다 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자격이 없는 사람, 1종 근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분양해서 자격을 부여했고, 이렇게 자격을 부여받은 그 자체가 특혜고 혜택이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 그게 혜택이고 그게 문제의 부정한 수수라는 거지. 임대보증금 냈다, 월세 다 냈다 하는 것, 그걸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그 자체도 뇌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상기해야 될 게 국회의 상

공무원들이—뇌물 외유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그분들이 국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 관련된 질의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해외여행 경비를 받았다, 이런 걸로 그때 뇌물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사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납부했다는 그 이유로 이게 면책이 되거나 면피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답변……

○곽상도 위원 아니요, 어차피 얘기 들어도 후보자 얘기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과거에 불법 사무실을, 일산 동구 국회의원 되기 전에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사무실을 두고 정치 활동을 벌여서 정당법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후보자께서 이 공간을 2010년 9월 일산 동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는 썼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건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일산 동구 지역위원장은 2010년 3월부터 맡았고요, 사무실은 2010년 9월에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로……

○곽상도 위원 기간이 9월이 맞느냐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 제보하신 분 말씀으로 ‘들어 가면 좌측으로 후보자 사무실이 있었고, 입구에 2개의 책상이 있었고, 나머지는 회의용 탁자가 쪽 해서 몇 개 있었다, 시·도의원 책상은 없었다’ 이렇게 음성을 따왔는데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의견……

○곽상도 위원 자, 들어가면 왼쪽에 후보자 사무실 있었던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왼쪽에 작은 방이 하나 따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것 후보자 사무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제가 쓰기도 했고 공동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직원 책상 2개 있었던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사무실이

여러 차례 내부 구조가 바뀌어서 그것을 계속 그런 구조로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책상 2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책상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회의용 탁자가 죽 해서 몇 개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회의용 탁자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시·도의원 책상은 없었다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시·도의원 책상도 처음에 마련을 해 놨다가 나중에 구조를 개편하면서 회의용 테이블로 다시 바꾼 겁니다.

○곽상도 위원 처음에는 있었다가 나중에는 없어졌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라고 간판 걸었다, 사무실 임대료는 시·도의원 5명이 각출해서 1년 동안 1500만 원 정도 나눠 낸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를 포함해서 분담하면 가능하다고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6명이 n분의 1씩 분담한 것입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 쪽 관계자가 이런 회신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그 당시에 문의하니까 합동사무실 운영할 수 있고 임대료는 공동사용자들과 n분의 1로 나누면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선관위 회신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선관위에서도 보존연한 4년이 지나 폐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후보자 사무실 쪽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렇게 질의한 적은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서면인지 구두인지 계속 저희는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곽상도 위원 아니, 후보자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관위에서 보존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류

로 질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서류로 했는지 말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위원님.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상도 위원 아니, 서류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로 했다고 해서, 보존연한 지났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가 자료를 찾으러 선관위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밖에 보관을 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당시에 저희 시·도의원들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선관위에서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는 여부를 사실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온 저희 시·도의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묻느냐면……

나중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예, 추가로 또 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계속 할까요,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이찬열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또 준비하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저는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한 가지 확인하고 요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들어와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이 과학교육 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인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을 통과시킨 건데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수학교육·정보교육, 소프트웨어와 코딩을 주로 하는 정보교육을 진흥하고 또 이 세 과목 사이의 융합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법인데요. 그게 작년 9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적용은 올해 4월 25일부터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위해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로 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저는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것, 글썬요, 한나절이면 돼 보이는 시행령 만드는 데 반년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을 시작을 하려면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4월 25일 적용되고 나서도 지금 5달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 동안 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못 했어요.

물론 교육부는 굉장히 현안이 많지요. 이게 만약 대입정책과다 그러면 대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을 풀어 가기 위해서 예기치 않게 일어난 상황들을 해결하느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과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제가 몇 차례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아무래도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시게 될 거니까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그 부분부터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오전에 다시 추가 때 질문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김태오 씨 아시느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와 연속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이분과 함께 회사 설립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회사 대표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언제 들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올 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3월 30일에 공동대표이사로 남편분이 이 회사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요즘 소송에 휘말린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위반으로 피소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더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새로, 고소인은 더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고 지금 남편분이 새롭게 대표로 들어가신 회사가 더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다음을 봐 주십시오.

두 회사의 회사 브로슈어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먼저 회사를 똑같이 모방한 것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 브로슈어도 그렇고 안의 내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저 먼저 회사의 이름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해서 꼭 분리해서 나온 회사처럼 해 가지고 지금 실적을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교롭게도 한 번도 수주 실적이 없는 이 회사가 공동대표가 바뀌고 나서 지금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소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게 소송과 관련된 거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이 혹시 전공을 뭘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국문과 졸업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 국문과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국문학 전공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국문학 전공하셨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천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농업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이 회사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이 회사는요 설계하고 나면 실시도면 그리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문영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남편분이 여기에 전문경영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

니면 투자지분을 갖고 공동대표로 들어가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투자지분은 없었을 것이고요. 친구가 도와 달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도움까요? 국문과 전공하시고 농업하셨는데 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남편분이 도움 수 있는 게 뭘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글썬요, 제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친구가 도와 달라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김현아 위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든 계속 의원님을 하시든 이 문제는 굉장히 오해를 받을 만한 여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사는 사실은 업계에서도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투자나 업무환경도 좋은 회사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분이 이 이후에도 이런 회사하고 어울리는 소송에서 어떤 불명예스러운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소송은 저희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두 사람을 다 같이 소송을 해 놓은…… 저희가 어제 강남경찰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피고소자이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확인한 것하고 실적이 좀 다른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매번 후보자님의 재산등록에서 2000만 원으로 한 것은 사실은 개략해서 한 것이고 재산신고에서 허위 재산신고에 준하는…… 아니, 허위 재산신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재산신고의 총액에 합산이 된다면 그것은 허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참고 정보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0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서 해석을 들으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재산신고할 때 국회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저희 행정비서가 재산신고할 때.

○**김현아 위원** 국회 어디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회계보고할 때……

○**김현아 위원** 이것은 제가 국회에 건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재산 검증을 굉장히 허위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0으로 맞춰 놓지 말고 매년 매출과 관계없이 특정한 금액을 써 내라고 지금 국회사무처가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잘못 준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왜냐하면 이게 청산된 법인이 아니라서 계속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지난번 것과 동일하게 써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하게 쓰는데요.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실제로 일어난 매출이 0이라거나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때는 이미……

○**김현아 위원** 지금 폐업이라고 하는 많은 변명 아닌 설명, 상세한 설명을 지금 박찬대 위원님이 제가 질문 세 번 하는 동안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폐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왜 재산신고 때 그것을 제대로 못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못 받아 주는 국회사무처는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해서 허위로 하라고 지금 종용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러니까 이게 재산 총액에는 아마 합산이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계속 있고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은 보셨겠지만 2014년도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0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청산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이것은 국회 관련 규정을……

○**위원장 이찬열** 김현아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다시 찾아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좀 바로잡고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다음에 만약에 후보자님 답변하신 것 중에, 합산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써도 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 위증하신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확실하신 것이지요, 그 답변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렇게 들은 것을 확신하셔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들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마무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제……

지금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두 번째 추가질의 시간인데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간 자꾸 가는데……

후보자의 진정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 시간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나열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추가질의를 못 했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4년 5월에 제정된 초·중등교육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퇴학 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력 지원, 취업 지원, 의료·복지 지원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지요.

지금 연간 학업중단 자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만 7000명 정도 돼서 전체 재적학생 대비한 0.7% 정도 수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대안학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는 현재 3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되어 있는 대안교육시설이 289개가 있고 총인원은 1만 4149명이 학습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에서 관련 단체를 추산하는데 이런 대안교육기관이 600개에서 800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부장관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공교육 체계 안에서 100% 다 담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찬대 위원 예, 많은 부분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육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학습기관들은 사실은 학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신분이 학생이 아닙니다. 최대한 분류할 수 있는 말이 아까 언급했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다변화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맞는 교육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공교육과 같은 큰 덩치로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리고 또 대학 진학과 관련된 수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사실 다양하게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교육 정상화 또 이면에 이렇게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도 충분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까지 있게 되느냐 하면 이 학교에 대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대학 이런 것도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벌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과장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학교나 등록된 학원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로도 학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실비변상적인 수업료조차도 부가세 과세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금 600에서 800개 정도 그리고 공식적으로 289개의 대안교육시설이 있는데 사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대안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그 가정에게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교육으로 정상화해서 다양한 국민의 모든 교육적 수요를 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대부터 20대까지 이와 관련해서 대안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등록법이라든가 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토를 통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안학교 등록이나 또는 진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혹시 어떤 정책적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도 19대 때 김병욱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계속 법안이 처리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에도 국회에 2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제화 과정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법을 통과시켜서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대안학교가 합법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당장은 아이들에게 공립형 대안학교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교육청에서 오디세이학교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오디세이학교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공립형 대안학교로 신설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공립형 대안학교에서 학습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이찬열** 답변을 좀 줄여 주시지요.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추가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선 질의에서 후보자에게 잠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곤 전임 교육부장관과 후보자의 정책방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지금 PPT에 여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분류를 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방향과 저의 교육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그 방향에서 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 방향이 똑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답변 과정에서 ‘속도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토록 높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달리던 시절에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느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교육 현안은 제가 알기로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합의된

100%의 찬성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희경 위원** 100%의 찬성이 없지요. 물론 저마다의 입장이 있고 다 각자의 견해가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가 이토록 갈팡질팡 교육정책 그리고 공론화위나 이런 데에 떠넘기는, 겉으로는 여론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책임하게 위원회에 의사결정과 향후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없다.

그리고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그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오히려 속도전을 내겠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청원이라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이 청원에서도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임을 밝히면서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방향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앞장서서 뛰는 대표선수를 김상곤 장관에서 유은혜 장관으로 바꾸면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것 될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희경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리 방향이 옳은 그런 방향의 정책이라도 지금 교육현장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은 현장의 수용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더 필요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데 국민들은 애석하게도 후보자와의 소통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그랬더니 오늘은 확인을 못 하셨다 그랬는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 발의하셨다가 철회하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것을 선의를 가지고 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리원 또 돌봄전담사 이런 분들을 정식 직제로 만들고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자……

그런데 많은 정책 실패는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선부른 선의에서 비롯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교사, 사범대생, 임용고시 수험생, 공무원 지망생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후보자에게서 세 차례에 걸친 해명을 했지만 결국에 법안을 철회하고야 말았습니다.

후보자에게서는 오해가 있다, 문제 조항 수정하겠다고 해명을 하셨는데 이 많은 교육계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오해해서 아직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실까요? 지금도 오해라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부칙 조항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법안을 철회한 것이고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다 정규직 교사로 만들겠다는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법의 취지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전희경 위원** 지금 취지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일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 이것은 의료사고를 세계 내셨던 분이 병원장 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부장관 되시는 것은.

이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강남 쪽에 있는 한 학부모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정시의 비율을 높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학부모를 만났어요. ‘의원님,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잘 갈 수 있게 내신을 중심으로 뽑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 산간벽지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정시를 높여 달라고 요구할까요?

살고 있는 지역, 다니고 있는 학교, 이 좁은 한 반도에서도 그렇게 각기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굳이 8학군, 강남에 살지 않아도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고 대학 잘 갈 수 있고 아니면 자기

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게 우리들의 임무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모두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에 있는 그 학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렇군요, 의원님. 전체 많은 학생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일반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정시에 좀 유리할지 모르지만 상황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은혜 교육부장관후보자에게서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8학군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강남으로 가면 8학군을 쫓아서 아파트값이 뛰는 그런 세상을 막아 줘야 합니다.

최초의 사회부총리 여성후보자 유은혜 후보는 살아온 것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군부 독재하고도 맞섰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 여대생은 그 이후에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 영달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이번에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면 유은혜 후보자는 이 세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이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남한산초등학교라고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들어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남한산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몇 명 없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덕수초등학교에 따님이 다니셨다고 했는데 종로구 쪽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망우산 밑에 숲속에 아주 예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면북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학교가 예뻐서, 그리고 혁신학교로 신청했더니 스쿨버스까지 생겼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엄마들이 이사를 오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주소라도 옮겨서 그 면북초등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남한산초등학교에서 나가서 풀 속에서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남한산초등학교는 다닐 학생이 없어서 없어질 위기에요. 그럼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사하고 싶어요, 이사 못 해도 그 학교가 사라지지 않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 노는 학교 다니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남한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런 건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내용을 알아 두십시오. 남한산초등학교,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면북초등학교. 학생이 별로 없으니 그 학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병설유치원을 만들면서 오히려 훨씬 좋아지고 숲속의 작은 초등학교이지만 그 학교 다니는 학생 아이들이 만족하고 그러면서 스쿨버스가 생기고 그곳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곳곳의 초등학교를 위한 대책도 세워 내야지 되고 그곳을 위해서 지원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동네에 사는 학생 숫자가 적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위한 대책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남한산초등학교 그리고 면북초등학교 그런 초등학교를 잘 찾아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피감기관 임대 건 관련해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왔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된 뒤에 2017년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에서는 어떻게 거론이 되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문제가 거론된 기억은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18년에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18년에도요.

○신경민 위원 하여튼 계속 교문위에 계셨던 것이니까 다 기억하실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국정감

사 기간에 그게 다시 재론된 기억은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때 한 번만 문제 되고 그다음에 확감이나 그 이후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기록을 죽 찾아봤더니 아무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때 딱 2016년 10월 첫 번째 감사에서만 문제가 되었고 그러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2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아마도 부총리로 지명이 안 되었으면 이것은 그냥 지나갔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게 재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생각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전부 다 의심이고 아주 치밀하게 굉장히 짜 가지고 했다 하는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질문들만 나왔지, 질문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명되신 이후에 기사의 종류로 봐서는 아들 문제, 딸 문제, 남편에 관한 문제 등등 포함해서 본인에 관한 것 해서 한 열서너 개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2개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개수로 따지면 아마 수천 개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은혜 지명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자면 덧칠을 하려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사의 종류를 죽 훑어보니까 지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의심 제기하는 것 빼고 나면 몇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대표발의한 법안에 관련된 건 이것은 팩트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그리고 교통위반을 여러 건 한 것, 50건 넘게 한 것, 그것도 팩트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그리고 휴일 기자간담회라고 쓴 것은 본인이 오기라고 인정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그것은 오기라고 인정해서 그것

은 선관위에다가 표기 정정 요청을 하셨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표기 정정 요청을 했더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그 제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게 본인에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합동사무실 문제, 시의원 공천을 헌금을 받고 했다는 문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무슨 세금 탈루 문제 이런 것은 팩트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죽 보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사실이 아닙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우석대 검직 문제도 19대 초에 모든 게 법이 바뀌었고 규정이 바뀌어서 그 당시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팩트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당시의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경민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당시 2012년의 규정상으로, 국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게 무슨 불법이고 위법이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그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 후보 본인한테 딱 떨어지는 것은 대표발의를 했다가 철회한 것, 그래서 청원이 6만 9000건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것, 이것저것 합해서 8만 개 된다고 아까 야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교통위반하고 휴일 기자간담회라고 오기를 한 것 이 정도가 본인한테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가족들, 식구들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사정을 알아보면 의심인 경우가 좀 많고요. 하여튼 본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결과 그렇게 수천 건의 기사가 나가고 종류로 따져서 열몇 건이 나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게 덧칠이 굉장히 세게 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더 엄격하게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저희 행정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요, 그만큼 엄중한 자리의 직을

맡게 됐기 때문에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후보자님을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잘 대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유은혜 후보님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들리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더 철저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팩트가 아니고, 우리 유은혜 후보를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팩트가 아닌 사실이 보도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도 있어서요 그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명하게 소명을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다만……

○홍문종 위원 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자님 입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홍문종 위원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부분은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래서 오늘 이것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자, 이것은 팩트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사실은 이렇고, 증거는 이렇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보기에 이 일이 끝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청문회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저희가 같은 국회의원이고 저희가 의정단상에서 매일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규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의원이라는 것이 무

엇이지요?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대신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유은혜 후보자—물론 가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마는—많은 얘기들을 저희에게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확실히 체크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각제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좀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정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의 고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유은혜 장관후보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왜 우리 장관후보가 그렇게 많은데, 많은 언론이 우리 장관후보자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분들도 유은혜 후보하고 특별한 뭐가 있나요? 옛날 대변인 할 때 무슨 인간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만약 우리 교육의 수장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의 사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장관은 이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뒤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장관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게 팩트가 아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그리고 야당 위원들에게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교육부장관님에게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교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일모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참 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

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당 위원들이 대답하지 마시고 장관후보자에게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장관후보자에게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변환경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더 원활하게 그리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절차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발언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장발언을 하시자고요. 한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장관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한 분이 1시간, 2시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합니다.

.....

○위원장 이찬열 잘 알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지금 세 분 남으셨는데 세 분 마무리 짓고 그때 가서 의사진행발언을 더 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우선 들어 보시고 판단을 좀해보십시오.

○위원장 이찬열 아니아니, 그러니까 간사님들 세 분이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두 번째 추가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지요. 그게 좀 공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한표 간사님 준비되셨습니까?

○홍문종 위원 잠깐만요.

이 질의 끝나고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만나셔서, 이제 집에 가야지요.

○조승래 위원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렇게 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도 질의하는 것을 참을 테니까 위원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판단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김한표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괜찮으시겠어요? 오세정 간사님 괜찮습니까?

○오세정 위원 질의는 하겠는데 먼저 의사진행발언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광상도 위원님 한 분?

○전희경 위원 들어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겹치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일단 광상도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광상도 위원 장관 답변 들으면서 참 정말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런 답변 태도를 보고 참 답답합니다. ‘팩트가 아닌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SBS에서 공천 언급하던 것에 대해서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후보자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고소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위원 상대로도 고소 한번 해 보시라고…… 팩트가 아닌 게 뭘 팩트가 아닌 것을 얘기했는지 그거부터 우선 분명히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질문한 위원들한테 이거 팩트가 아닌 것가지고 자기를 무슨 음해하기 위한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 하나 하나 찾아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하나씩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본인이 자료를 안 내서 우리가 팩트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묻지 않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팩트가 아닌 것 지적해 주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 팩트가 아니면 위원들 상대로 고소라도 하라고 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가?

○위원장 이찬열 광상도 위원님 되셨지요?

○광상도 위원 예.

○위원장 이찬열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인정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후속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야당 위원이 똑같은 것을 또 물어보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이 또다시 뒤엎어지고 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범규에 의거한, 본인은 실수다, 부지다 이렇게 다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현 상태로는 범규 위반을 인정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팩트에 의거하지 않았다고 지금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상당수는 팩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미비하거나 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까 처음에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때는 보면 여당 위원님들은 갖고 계신 자료를 야당은 못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팩트부터 다시 이것 시작해야 된다면 저는 청문회를 하루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언론의 생중계와 집중조명하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가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하루 더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광상도 위원님과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위원님들께서 팩트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팩트가 아닌 것을 언론에서 보도했고 그 언론보도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팩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공천현금을 받고 공천을 했다’, 이것은 명백히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정치인을, 500만 원 고액후원을 한 사람을 2년 뒤에 공천했다고 해서 공천현금 받고 공천한 사람으로 만들면 아마 많은 정치인이 다 그렇게 범죄자로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합동사무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그 팩트를 전달드리고자 저도 자료를 열심히 찾았지만 2010년, 11년의 그 자료는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고 선관위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길게 말씀드려서……

○서영교 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정 간사님.

○오세정 위원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불편한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 정책적인 것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입에 버금가게 중요한 문제가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학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20년에는 2만 명 줄고 22년에는 8만 명이, 정원이 많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결국 역량평가 사업에서 줄인 게 한 1만 명 조금 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줄일 건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앞서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1만 명이 줄어들고 2022년까지 또 저희가 다시 3차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오세정 위원 기준을 정하더라도 7만 명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번에 기본역량진단에서 20개 대학이 학생 감축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38개가 추가적으로 더 폐교된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팩트가 있었어요.

○오세정 위원 아니에요, 그건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문제는 이번 같이 하게 되면 결국은 지방대학이 굉장히 고사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것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오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계속 3년 뒤에 또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제 학생부, 그러니까 대학 중심의 대학을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좀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세정 위원 글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리고 각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 생각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해답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미 대학원도 포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이 정원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정지원사업을 지금처럼 여러 대학에다 막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거점대학은 아주 확실하게 키우고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데를 다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살리고 아무것도 못 죽이고 하는 것같이 보여서 그것은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제로 폐교되는 대학이 어쨌든 간에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종합 관리하겠다고 예산 신청했는데 하나도 못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1000억이……

○오세정 위원 1000억 했는데 못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오세정 위원 1000억이라는 돈도 큰돈이 아닌 게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 임금채불액이 250억인가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1000억 가지고는 가망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교대학 관리…… 어쨌든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못 받은 게 교육부 직원들이 얼마나 기획재정부 관리들을 설득할 능력이 부족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든지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립자들이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폐교하는 것은 서로 페인풀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거점국립대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고요, 전문대는 기술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폐교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법도 지금 필요해서 법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법안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은 이번에 확실히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

○오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보면 아까 교육공무직법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여러 가지 저항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안 하시…… 자진 폐기하셨고, 또 질문을 하니깐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앞으로 다시는 시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필요성은 없어졌는데요.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2014년도에 대법원이 판결을 해서 학교 회계직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고용시스템을, 그러니까 교육감이 고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지역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라든가 고용 불안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그것을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동일한 일을 하는 분들은 지역의 차이 없이 동일한 급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역에서 이미 시·도교육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다시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세정 위원 그런데 회계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됐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된 겁니다.

○오세정 위원 해소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거지 완전히 정규직이 된 게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다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그 법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오세정 위원 그런데 그때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그렇

게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됐다고……

○오세정 위원 동아일보에 그렇게 나왔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비정규직 문제가 지역별로 교육공무직 직제를 조례를 통해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서 교육 문제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그때 이러저러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제일 제가 감명 깊었고 야, 저건 저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 하면 당시에 프랑스에서—그 전입니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인지—프랑스 국민교육대토론회를 하는데 수년에 걸쳐서 전 국민적인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프랑스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교육 분야별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또 각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대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 내서 그걸 가지고 죽 집행하는 모습을 봐서 정말 저건 좋은 모델이고 저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비록 비난도 좀 있고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입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대입 문제는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A라는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대입제도가 아니고 그 대입제도의 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입제도라는 것도 고등학교의 이해관계 또 대학의 이해관계 또 학생의 이해관계, 때로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 조합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 조합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결국에는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은 그 성과도 있지만 너무 시한에 쫓겨서 공론화됐다는 오히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론화 과정을 우리가 잘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의 교육과 관련된 토론이나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정말 거시적 토론을 한 수년에 걸쳐서, 한 2~3년…… 이걸 정권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을 바꾸려면 최소한 십수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한 수년 정도의 충분한, 그러니까 정권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시적 공론화 과정을 하나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방과 후 영어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시적 공론화와 미시적 공론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교육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거시적 토론을 주도해 나가는 단위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교육부는 정책 튜닝을 하기 위한 미시적 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선 질의에서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소신이 뚜렷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다들 걱정하는 것처럼 교육부나 교육관료들의 저항이나 기득권 문제가 이것을 막을 것이라든가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관후보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구상은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이나 이런 걸 혹시 갖고 계시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에 저도 다 동의하고요. 제가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교육부 내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한다거나 하는 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요. 누구보다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지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것은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좀 더 거시적인 방향의 국민대토론회와 같은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혹은 어떤 기구를 전환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될 것인지부터 검토해서 이야기되어야 하고, 다수의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잡아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나머지 교육자치 부분이나 또 구체적인 정책현안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정책현안들이 현장에서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동성애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후보자님은 동성애는 개인 성적취향의 문제이며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간단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는 여성이나 흑인이나 동성애나 사람이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동성 결혼의 합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동성애에 대한 결혼은 사회적 합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지요, 동성 결혼과 관련된 것은 법에 문제가 있고, 그 법은 아직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부분은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한표 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균형 잡힌 생각들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정도 되면 스펀지처럼 그냥 보이는 것들을 마구 받아들이는 성향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해 6월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느 교사가 6학년 영어수업 도중에 퀴어축제에 관련한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 준 겁니다. 제가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퀴어축제라든지 이런 걸 그냥 무분별하게 보여 줌으로써 영상 그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아이들한테 잘못된 생각을 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극히 조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남자를 데려와 가지고 내 와이프다, 내 아내 될 사람이다 하든지, 아니면 자기 딸이 어느 날 여성을 데려와 가지고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된다면 이 세상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옳게 볼 수 있습니까?

단지 동성애에 관한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한 부분은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지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꾸린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이든지 가르친다는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퀴어축제의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의 의미가 단순하게 축제 그것만 있는 겁니까? 그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님의 견해는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직까지 비판능력이나 사회현상에 대해서 분별능력이 떨어질 때에 이것을 무자비하게 가져가서 일방적으로 틀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직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나이에 일방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두 번째 추가질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앞으로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의해서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당 간사님들의 협의·합의에 의해서 추가로 10분씩을 더 드리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가능하면……

○신경민 위원 한 번만?

○위원장 이찬열 예, 한 번으로 해서 가능하면 10분 내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정성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보자님도 답변에 성실히,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님들 속이 후련하시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광상도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광상도 위원님부터 세 번째 추가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후보자에게 또 묻겠습니다.

아까 묻던 것에 좀 이어서 묻겠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레이크하임 207호에 있었던 경기도당 일산동구 지역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0년 11월 17일 자로 지역대의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 접수처가 이 지역위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

○광상도 위원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을 제가……

○광상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겠지요.

○광상도 위원 또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문서 현장접수처 안내가 있는데 이 현장접수처가 바로 후보자 사무실이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출력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맞지요?

맞든 안 맞든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광상도 위원 제가 보니까 위치가 똑같은레이크하임 207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문서를 여기에서 접수를 하라고 당에서 공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정당법에는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런 역할을, 이런 일들을 한 게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당에서 해야 될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서 이런 사무소를 두면 안 되는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제가 시·도의원들이 사무실 운영비를 각출을 해서 돈을 1500만 원가량 냈다고 하는 얘기도 물어본 이유가 이 사무실, 이곳이 후보자 사무실이면 후보자가 전부 부담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게 후보자 사무실이었던 것은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 사무실이 아니고요. 이곳은 합동사무소로 이용한 게 맞고 또 저희 시·도의원들이 거기서 그 주소에서 팩스를 보내고 활동을 했던 게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아니고요. 같이 합동사무소로 쓴 것이고 비용도 저를 포함해서 분담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광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분담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후보자 사무실이면 분담한 것 자체도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도 그렇게 난 것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한겨레신문은 봤습니다만 당시에 저희는 선관위에서 그렇게 분담해서 6명이 똑같이 지출하면 가능하다는 이

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는 취지는 왜 물어보냐 하면 차후를 대비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저희들은 임명을 강행하면 저는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후보자를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이게 지금 범법행위입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정당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일부 시·도의원 중에 어떤 분은 여기가 후보자 개인 사무실이지 공동 사무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후보자가 범을 어긴 그런 개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보자께서 지금 자꾸 선관위 자료에 대해서 문서로 보관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후보자 쪽에서 해명을 선관위에 가서 물어보니까 보존 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선관위는 문서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 후보자 측 관계되는 사람이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지금 못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당시에 저희 사무실 관련한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문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곽상도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저희가 선관위에 가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그랬거든요.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서류가 선관위에서 보존 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그것은 서류를 가지러 갔었습니다, 선관위에.

○**곽상도 위원** 기자간담회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서 오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처,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장소, 식당 이름, 가격, 사업자번호, 업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보자께서 카드를 쓰신 거라는 거지요, 결국?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정치자금카드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 사용한 것은 지역에서 시·도의원 간담회나 지역 위원장들 현안간담회나 이런 것들에 썼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쓴 것입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 제가 물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카드를 갖다주면 후보자가 이게 무슨 용도로 썼다고 직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직원이 이것을 받아서 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책간담회 참석 안 한 직원이 정책간담회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오기라고 얘기하고 직원의 실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후보자가 이 카드를 갖다 주고 어디에서 썼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영수증에 아마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지 연말에 몰아서 입력을 하다 보니 그런 기재 오류가 생겼던 것으로 봅니다.

○**곽상도 위원** 연말에 몰아서 하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몰아서 하면 어떻게, 무슨 자료인지를 원천적으로 기억해 낼 수가 없잖아요.

고액후원자와 관련해서 이게 허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액후원자 관련해서 좀 물겠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솔직히 저는 뭐 그렇습니다. 고액후원자가 우리 지역에서 돈 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번호가 있으면 어떤 분인지, 어떤 경위로 후원하게 됐는지 알하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후원자가 누군지도 몰랐다, 지금 이런 취지입니까? 전화해서 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습니까? 내 지역구에 사는 분도 아닌데, 다른 지역구에 사시는 분이 500만 원이라는 정치자금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 후원한 분한테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인데 후보자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2016년 당시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그 기간에 아마 지역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했기 때문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님, 전화해서 이렇게 안 했냐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전화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영수증과 감사편지는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영수증과 감사편지는 보냈는데 전화는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별도로 전화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이분하고 알았을 수도 있다 하는 논란이 있다고 하는 기사가 허위라고 얘기할 만한 게,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고액후원금을 냈다는 사실과 그것이 2년 뒤에 이분이 공천받아서 시의원이 된 것과는 아무런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위적인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통상은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제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면서 느낀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아까 월세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회신 내용은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서면으로는 질의받은 적 없다고 말을 바꾸셨고 사무실 낙찰 정보를 사전에 알았지 않냐고,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만 알려 줬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간담회로 적어야 될 것을 기자간담회로 잘못 적었다고 얘기한 것도 디테일한 부분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여덟 차례 계속 유찰됐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실제 상황은 첫 입찰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꾸 달라지고 변해서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맞는 얘기인지 저도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 언론에 대고 해명하거나 이렇게 하

신 것들이, 후보자나 후보자 측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다가 또 청문회장이나 서류상으로 말을 바꾸시니까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찬열** 일단 마무리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 이런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 각각의 말씀 주신 것에는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도 있고 저희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고액후원금을 받고 기초의원 공천을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된 소명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초의원인 우리 후보자 지역구에서 공천된 분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닙니다.

○**박찬대 위원**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라면 후보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당원이나 혹시 지역위원장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 2인 선거구에 공천 신청자가 2명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2인 선거구에 2명 신청해서 2명이 경선을 해서 순번을 정했고요. 이분이 ‘나’번을 받아서 이번에 ‘가’·‘나’번 두 분 다 당선이 됐습니다.

○**박찬대 위원** 2인 선거구에 2명이 공천 신청을 하면 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이 공천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박찬대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가’를 만나, ‘나’를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를 받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를 받았다고 하면 ‘나’를 받는 것보다 좀 유리한 정황이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말씀대로 ‘나’를 받았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경선하

고 ‘나’를 받았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2인 선거구에 2명이 신청했는데 일방적으로 ‘가’를 준 것도 아니고 경선을 붙여서 ‘나’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두 분이 다 당선된 결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2년 전에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천에 어떤 유리한 결과를 줬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일을…… 돈을 받고 공천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큰 불명예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던 일을 이렇게 억지로, 억지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찬대 위원 아까 야당의 위원님들께서…… 특정한 의혹이 제시가 되면 사실관계와 판단에 따라서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분명하게 이것은 공천과 관련된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공천 신청자와 관련해서 기호 결정방식을 논의할 때 혹시 회의에는 참석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면접 심사할 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결국은 더욱더 이 공천과 관련해서 물리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유추가 될 수 있고요.

제가 그러면 다시 직접적으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천 신청자의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으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법적·정치적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찬대 위원 이번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입장도 그렇다고 일

관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 신청을 지금 접수 중이고요.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이어서 정책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서는 대안학교와 관련된 지원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지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분들한테 가장 간절한 것은 지원이 아니고 등록입니다. 인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인가를 받는다면 사실 여러 가지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교육의 자율성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물론 교육세를 내고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학생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리고 학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를 먼저 원하고 있거든요.

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을 원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으로 우리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교육에 대한 보충으로 또는 대안으로 분명한 교육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대안학교는 공교육을 대체하거나 공교육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 국민의 모든 다양한 교육 수요를 다 충족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대안교육기관의 의도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건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에 의하면 작년 2학기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한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하면 1만 3000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Wee센터의 최근 5년간 상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1만 369건으로 2014년의 6285건보다 무려 65%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의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상담 건수 증가율이 각각 53%와 29%의 수준에 비해서 확연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했지만 해를 거듭해 갈수록 심각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 근본적으로 좀 줄어들고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주변의 동료들이, 친구나 교사들이 방관자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도 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확일적이고 경쟁 중심적인 교육이 바뀌어야지만 되겠지요. 배려와 존중의 교육문화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각 학교마다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도 전문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치되고 있지 못해서 전문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한 학교에 최소한 1명씩은 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의 폭력행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교사를 때리거나 욕하고 성희롱하

는 사례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교권침해 건수가 2013년 58건에서 2017년 16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의 폭행을 넘어서 교사에 대한 폭행까지 발생하고 학교폭력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심각성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를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도 같이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경쟁 일변도의 한 줄로 세우는 학교 교육, 그 안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의 어쩌면 외침이 아닌가, 일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갖게 됩니다.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공감하고요. 학교폭력도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에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라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이게 교육문화·학교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장기적인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될 구체적인 정책과 장기적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돌아가다 보니까 질문이 자꾸 중복되는 현상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께 우리가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가능하면 질의하실 내용을 좀 정제를 해서 가지고 새로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시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전에 김상곤 부총리가 하셨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보시면 실제로 정책기조는 교육부랑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그런데 김상곤 부총리는 안 되고 유은혜 부총리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언론에 하신 얘기 말고 후보자님 본인 얘기를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지만 앞서도 드렸지만 그것을 현장에 구현하는 데 갈등 요소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치인 출신이고 일의 어떤 조정이나 조율이나 또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점에서 좀 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것은 청와대에서 언론에 나온 것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을 부추겼고 교육문제 하나 해결도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문제인 정부 스스로 자인하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김상곤 부총리는 안 되고 유은혜 부총리후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소통이라는 것 하나뿐이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인 생각을 여쭙어보잖아요. 후보님 생각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사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후보자님이 지금 인사권자하고 마음이 통하시는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교육정책이 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되고 갈등을 일으켰고, 그게 문제다라고 자인하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상한 대답하지 마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1년 동안에 교육정책이 추진됐던 과정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

니다.

내년 예산 지금 준비 중이실 텐데요. 내년에도 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대토론회 이런 것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론화는 국민 참여의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교육 자체가 어떤 위의 관료들이나 전문가들로만 정해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친 거고……

○**김현아 위원** 그러면 공론화는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은 정책사안이나 필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보잖아요. 내년 예산에 이게 잡혀 있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공론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부처 뒤에서 확인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남한산초등학교를 가르쳐 주셔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까 말씀 중에 ‘훌륭한 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어서 주민등록을 지인에게 옮겨서라도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있다, 이 학교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그런데 자기 가까운 데 있지 않고 좀 멀리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싶은 부모들이 있을 텐데, 또는 남들 모르게 옮겨서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갈구하는 학부모님들에게 후보자께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김현아 위원** 저는 후보자님의 위장전입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수요를, 이런 욕구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교육정책으로 뭘 변화시켜 주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초등학교, 그런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초등학교에도 교육환경이나 교육시스템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이지요.

○김현아 위원 그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그러면 들키면 범법자고 안 들키고 다니는 사람은 좋은 학교를 위해서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어떤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김현아 위원 아니요, 지금 좋은 학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좋은 학교를 많이……

○김현아 위원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장관후보자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겠다, 언제까지 뭘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주셔야지 국민들이 후보자를 장관님으로 기대하고 장관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장관이 되면 특히 유치원·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출발선상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김현아 위원 후보자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왜 자꾸만 제가 묻는 질문에 본질의 대답을 안 하시고……

출발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선이 평화롭지 않아서 열심이 있는 부모는 위장전입을 해서까지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불법 사태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시라고 하는 건데 출발선을 처음부터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요.

○김현아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아 위원 교육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그렇게 하려면 교사들의 자기 역량 개발이나 혁신적인 역량을 더 배가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연수나 이런 것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교육부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신다고 하면 제일 후순위가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청문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생각해서 답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성격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실수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실수를 많이 하시는 성격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 실수는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제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일하는 직원들의 실수도 함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위원 의원님도 실수를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실수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

○김현아 위원 아니, 이것을 인정하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제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엄중하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뭘 하겠다고 제가 여쭙보는 게 아니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제기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직원들의 실수도 인정하시는 거

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그런데 실수가 쌓이면 그것은 실력입니다.

그다음에 회계처리와 관련되어서 아까 광상도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실에서 회계처리하시는 비서분이 문제의 그 오 모 비서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맞습니다.

○김현아 위원 연말에 가서 정리해야 될 정도로 의원실의 업무가 많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연말에 정리한다는 것은 그 입력을 연말에 회계보고할 때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오류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현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 모 씨가 남편 회사의 일을 같이 보시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남편 회사는 이미 문을 닫고 일하지 않는 곳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는 것이요, 후보자님께는 답변을 다 받았고 제가 아까 간사님께 요청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회 때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률이 90%라고 제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조승래 간사님께서서는 역대 교육부장관 청문회 때의 자료 제출률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위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이런 자료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 출처가 혹시 교육부가 아닌가, 아니면 후보자께서 정리하셔서 여당 위원들한테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발언한 중에 서울 프루아트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1911년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제공받았던 그 서류에서 그 회사의 대표자가 잘못 오기한 것으로, 오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인정 드립니다.

제가 여쭙았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열 후보자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숙려제 공론화 예산은 지금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에 약 5억 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내년 것으로 5억 원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장 이찬열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연구비 유용 문제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 돈을 받아서 개발한 특허를 연구지침을 어겨서 빼돌려서 수천억 원의 사적 이익을 축적했던 사건 또 가짜 학회를 통해서 연구실적을 부풀리고 해외출장을 갔다온 사건 또 한국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구팀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한 사건, 이것 말고도 아주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연구 분야에서 벌어지는, 학문·학술 분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정도의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일을 방지하고 감시하고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교육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점입니다.

먼저 가짜 학회의 대책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지난번에 과기정통부와 함께 대책 발표를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그 대책의 골자 혹시 기억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일단 학교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전수조사가 취합되면 국고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회수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것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지요. 셀프검증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후보자에게 강조 드리는 것이 무엇이나면 교육부도 그렇고 이런 연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알아서 하라고 두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더 남다른 의지가 필요하고 특히나 2기 사회부총리로, 교육부장관으로 들어가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외부에서 이런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특위 구성해서 조사하고 검증하고 징계하라는 것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결과를 취합하면 교육부에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증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 이찬열 후보자님, 위원님 질의를 끝까지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박용진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괜찮은데요, 문제는 앞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다 해당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거나 제가 볼 때는, 제가 국감 때 버르고 있는데요, 공모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른 기관에게 셀프검증을 맡긴다? 전수조사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이 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연구윤리 확립도 역시 셀프검증이 핵심 내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비 부정 근절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연구비 부정·비리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단의 관심을 갖고, 알아서 하는 방법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특위를 꾸리고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한 계획이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후에 교육부장관이 되시거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거든요. 학문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인문·사회 분야까지로도 넓히겠다는 의지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된 의견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교육부의 계획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지금 각 대학이 일차적인 경위조사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

이고요, 교육부에서는 제출된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일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직접 조사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비를 환수한다거나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징계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좀 안이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문제인식을 갖고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초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까지 학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지 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후보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자체조사를 통해 검증되어서 올라온, 보고된 것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씀이지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경위서…… 그러니까 그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누락됐으면 그것이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이번에 연구특허 관련해서 그 교수…… 담당 대학이 서울대인데 처음에는 자기들은 다 잘 했다고 얼마나 큰소리치는지 몰라요.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예요. 그것 확인해 보면 얼마나 웃긴데요. 그 특허를 개발한 시점 이전에 기증받은 주식을 가지고서 마치 그 특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처럼, 심지어 의원실에 와서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관도 속이고 교육부도 속이고 이렇게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멍을 지금 제가 미리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경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PPT 좀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사회부총리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사회부총리가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여기에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다 들어가는 것도 아실 테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의장이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회의의 참석자예요. 이 내용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검증을 받으셨는데 이제 제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볼게요.

보세요.

지금 사회부총리가 산적한 현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관계부처만 해도 8개, 그런데 어떻게 현안마다 이렇게 극단에서 오셨나……

한번 보세요.

2017년 1월에 사드 방중하셨지요? 의원 7명 중의 한 분이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그렇지요?

다음입니다.

2012년에는 통진당 해산 비판 기자회견 하셨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당시에 현재에서 8 대 1 의견으로 통진당은 해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결의안, 스물다섯 분이지요. 스물다섯 분입니까, 스물여섯 분입니까? 여기의 한 분으로 이름을 올리셨어요.

다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직법, 한바탕 소란 끝에 법안 철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회부총리라는 것이 여러 부처의 현안을 조정하고 그러려면 각 부처 현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각계에서 의견이 심각하

게 대립하는 데 대해서 사회부총리의 의견이 중요하겠지요?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죽 해 오셨던 거예요.

물론 어떤 정당의 의원으로서 활동하신다 그러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저런 행보를 하셨다, 백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사회부총리가 돼서 저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저런 시각으로 접근하신다. 사드 문제, 국방·안보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의 문제……

왜냐?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후보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지원과 지지, 사격을 받고 계시는데, 사회부총리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이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끄떡 없이 견재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데 저런 정책에 있어서 과연 유은혜 후보자께서 사회부총리로 적합할 것이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게요.

지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후에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언론보도,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 및 환경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기지 내·외부의 값은 각각 200분의 1, 250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체에 무해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유은혜 후보자께서 사드 방중하시고 사드 반대 집회에 참여하시고 한 것과 문재인 정부 내 환경부가 전자파 실측한 결과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발언이 제가 안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렇지요? 안 맞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당시에 제가 사드와 관련해서 방중을 한 것은 교문위에서 문화산업 생태계가 사드 배치 이후에 너무나 많이 어려워져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 좋은 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드러내 놓고 있는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공무직법에서도 그랬듯이.

그때 당시 야당,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중국에 의해서,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사드 의중을 의원방문단이 중국으로 하여금

오관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런 행보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한걸음 한걸음의 조심성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의장이 되셔서, 천신만고 끝에 청문회 어떻게 이 정부에서 밀어붙인다 해서 그 자리에 가신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하고. 지금 의장으로서 회의 주재하시는데 기재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전부 거기에 멤버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소상공인들이 못살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은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경제부처와 더불어서 정부 전체에서 정책대안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너무 허무한 답변이시네요. 이 청문회가 그저 유명무실하고 임명이 강행되실 경우에 당장 사회부총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 당면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내 이웃의 가게가 오늘 문 닫을지 내일 문 닫을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이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방안들은 발표한 바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틈새 없이 현장에 잘 반영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것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전희경 위원 별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현장의 뜨거움, 현장의 치열함과는 상당히 온도차와 거리감이 있는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처음에 당선되실 때 야권 단일후보라고 아까 어떤 자료에서 보이던데 그 지역에서는 통진당 후보가 안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통진당 후보는 없었습니다.

○전희경 위원 통진당 후보는 없었습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논쟁, 이 정부의 자유 삭제 그리고 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삭제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엄청난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일부 있으시지요.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듣고 계시지요?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전희경 위원 그런데 심지어 유은혜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현재가 8 대 1로 결정한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도 저렇게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중심추를 잡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당시 통진당 해산 과정에 대한 판결에 최근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시기와 이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직을 맡아서 그 직을 어떻게 다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더 책임을 느끼라는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덧붙여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당시 재판관은 헌법소장 낙마했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전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유은혜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고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어깨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더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고양국제고등학교라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있습니다.

다.

○서영교 위원 고양국제고등학교의 비정규직 보안관 아저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학생들이 그 보안관 아저씨를……

○서영교 위원 8월 30일 자로 해고될 보안관님을 학생들이 이 보안관 아저씨는 그냥 경비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 들어갈 때 ‘어, 왔니?’ 그리고 학교에서 나갈 때는 ‘밥 먹었니?’, ‘오늘은 일찍 가는구나’, ‘오늘은 늦게까지 수고했다’, 학교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마디씩 건네주는 보안관 아저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비정규직이었고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있었고, 이런 비정규직인 분들이 공무원으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유 후보자에게 있으셨던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지요.

청소용역, 경비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른 형태의 고용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 노동의 대가를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연세 많은 어른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관을 한다고 해서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따뜻하게 해고통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보안관 아저씨들은 평평평 울었다는 이야기,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그리고 학생도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안관 아저씨도 계시고 청소하는 어머님도 계시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 고등학생이 향후 얼마나 잘 클지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하나, 문제 하나, 성적이 등수를 매기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따뜻한 마음, 창조적인 노력으로 또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을, 고양시 국회의원이시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부장관후보자님, 장관후보자가 되시고 장관이 되시면 높은 위치로 가기도 하지만 10배, 20배 뛰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안관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곳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교육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산골에 있는 학교도 좀 다녀 보시고, 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남한산초등학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망우산 숲 속에 있는 작은 면북초등학교, 애들은 너무나 예쁘고 공부도 재미있게 하고…… 그런데 학생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는 이제 병설초등학교랑 붙이면서 조금 더 많아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한산초등학교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편백나무 숲이 드리워진 그곳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어요’. 저는 서울 근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지방에서도 그렇고 작은 초등학교에서 뛰어놀면서 숲속에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 재잘재잘 떠들면서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의 학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 이런 곳에 학생들이 잘 갈 수 있게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8학군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라고 해서 그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이 있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놀 수 있는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후보자께서 그리고 또 뒤에 계신 교육부 관계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구는 아까 김현아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속에서도 들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학교도 살리면서 학교생활도 행복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창문에 미투 종이를 붙이면서 아이들이 미투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는 사립학교였습니다. 미투에 연루되었던



선생님들이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은 빈자리는 시간제교사를 쓰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미투를 이야기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학생부종합전형도 있고 걱정도 많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했고 향후에도 무서워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가고 난 자리에, 징계받고 빈자리에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 가서 그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도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빈자리를 채워서 가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사립학교에서는 시간제교사를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저희가 못 해요' 이렇지 마시고 그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 학교와 이런 것을 별도로 알려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미투를 창문에 붙였던 광주의 학교는 아주 유명하니까 보시고요. 사립학교라서 우리가 파견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법적으로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교육부와 또 국회에서 법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고교 상피제……

최근에 시험지 유출 관련해서, 최근 시험지 유출이 되었던 곳이 일곱 곳 정도 있다면 그중 다섯 곳이 사립학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상피제, 부모와 관계자가 그 학교에 같이 있지 못하게, 학생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사립학교에서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사립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립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교사의 채용이나 또 인사 문제 이런 것이 학교법인에 있는데요. 학교·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실은 사립학교에도 지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학교·학생들을 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채용이나 인사 문제에 공적인 힘이 작용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대안을 찾아서 저희들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10분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신경민 위원 저는 몇 가지 관심 사항만 여쭙보겠습니다.

2년 전의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억하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신경민 위원 최근에 이분이 어디입니까, 소속기관입니까? 어디로 복귀를 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분을 느끼는 이유는, 복귀를 하게 된 배경은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법으로 해서 징계 내용이 과하다는 것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와 사안의 중대성이 겹쳐 가지고 복귀가 어쩔 수 없이 되긴 됐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분이 본부에는 물론 복귀를 못 했지만, 원래 본부에서 간부를 했기 때문에 본부를 못 가고 소속기관으로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소속기관이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본부에 준하는 정도의 상당히 좋은 직책으로 원대복귀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화를 많이 돋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보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좀 원고심려(遠考深慮)가 없었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더니 소속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

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조승래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경민 위원 이게 바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제가 지금 영등포에 있는데 영등포의 초등학교 한 군데는 초등학교 1학년을 받았더니 한국 학생이 없고 전부 중국교포 자녀 내지는 중국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그렇게 생겨 가지고 이게 100%,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중국교포 내지는 완전히 중국인 자녀로만 된 학교는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온갖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못 따라가고요. 사실 100%가 되기 전에 50%가 되거나 30%가 되거나 이런 훨씬 전에 일정 수준의 중국교포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조치를 하나하나씩 취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100% 중국교포 자녀 내지는 한족 자녀들이 들어와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누구 눈에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 와 가지고 조치를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문화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지금 ESL을 본뜬 KSL이니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치가 되어 있고 이중언어교사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미흡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서울시교육청하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전국적 현상일 거예요. 전국적으로 특정지역 몇 군데를 보면 이런 지역이 꽤 있고 서울도 몇 개 지역, 가령 구로구랄지 광진구랄지 영등포구랄지 이런 데가 그 통계수치를 보면 이것 사태가 간단치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지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속단체 중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에 학술진흥과가 있을 거예요. 과장이 아마 이것을 전담하는데 학술진흥과장이라는 보직이 자주 바뀌고요. 이게 아마 1년 텀으로 자주 바뀌고, 예산은 많습니다. 예산은 2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인문사회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비정규직 학술기술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전공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기획하고 입안하는, 실행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있고요. 이 2000억 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에 한국학대학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흔네 명,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석사는 283명이 이미 배출이 됐고요. 현재 이 시각에 가서 봤더니 38개국에서 온 154명의 외국인 석·박사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기숙사가 아주 열악하고요. 그리고 기혼자들이 있을 곳은 전무하고요. 기숙사 중에 4명이 한꺼번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류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보시고 금방 말씀드린 것과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동료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극히 조심을 좀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김현아 위원의 발언에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과 죄송합니다마는 조승래 간사님께서 90%로 자료를 다 제출했고, 전에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60~

80%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했나요? 오늘 저 뒤에 배석해 있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주지 않으시면 이런 통계가 단순하게 들어오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본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욱 좋지 동료 위원들 발언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현아 위원께서는 정확한 팩트 자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90% 그다음에 황우여 전 장관 같은 경우에 60~80%에 대한 수치를 지금 적시하셨는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동료 위원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동료 위원 서로의 예를 생각해서 이 청문회 마치고 나서라도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유 후보님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청문회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한 2시간 전에 약 6만 팔구천 정도로 철회를 요청했는데 지금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 후보께서는 대통령께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잘 생각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수장으로서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옳은지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 제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인 팩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팩트에 관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계속해서 의혹에 관한 부분을 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성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해명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혹여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김한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김한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

○박경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열 박경미 위원님은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박경미 위원 아까 안 했는데요, 지금 계속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궁금해하셔서……

○위원장 이찬열 좋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경미 위원 예, 저는 30초만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과 김한표 간사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1.65% 자료 제출 건수 비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요.

자유한국당에서 유은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비해서 청문회 일시를 뒤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요청까지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자료가 얼마큼 제출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승래 간사님 통해서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모두 755건이 요구가 됐고, 그 중에서 692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황우여 후보자 때의 자료도 저희가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우여 후보자의 경우 어떤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는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이전에 황우여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록들을 찾아서 어떤 자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위원장님께서 저지를 하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예컨대 당시에 외화 송금과 수금 내역 경우는 후보자 본인 것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외화 송금·수금 내역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이런 것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저희 방 보좌관이 당시 경험과 기록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조승래 간사님께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다 이용해서 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통계 문제는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경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 결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동료 위원들을 면박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혹시 오해가 있으셨으면 그것은 좀 유감이라

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처음 회의 시작할 때 제가 행정실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한테 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황우여 장관, 이준식 장관후보, 김상곤, 유은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 왔고, 이 자료는 제가 어제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도……

○**김현아 위원** 저희도 아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실에서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김현아 위원** 같이 주셔야지요.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찬열** 그것 왜 안 드리지, 달라고 그러셨는데?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조 간사님만 저희 행정실 직원에게 말씀하셨고요.

○**김현아 위원**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조승래 위원**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박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2004년인가요,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위원회, 지구당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구당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총선 지나고 나서, 2006년 지나서 아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시·도의원 또 시의원 합동사무소가 지역에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2015년 새누리당 장안구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2018년 3월 달에 자유한국당 양주당협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2018년 2월 부천원미읍 시의원 합동사무소, 2016년 11월 30일 날 새누리 광주갑 사무소,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당이 폐지되고 나서 그렇게 존재하는 일종의 시·도의원들끼리 정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포괄적으로 다 인정을 해 줬던 그런 과정들이

있고 유은혜 후보자만 지역구에 그것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원외활동을 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저는 한 두세 가지만 정책질의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혹은 전문대학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일생을 먹고살 수 없어서 계속 직업이 바뀌어야 되고 해서 성인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특히 교육부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사회부총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평생교육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부처에 널려 있어요. 고용노동부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굉장히 서로 칸막이가 많아 가지고 내용이 중복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효율화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저는 제가 장관이 되면 꼭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 직업교육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오십대도 직업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혁신역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부분들은 제가 장관이 되면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 다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이것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디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지금은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대개 문화교육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교육이 아

나라 문화생활하고 취미생활하는 게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AI가 됐다든지 로봇이 됐다든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심각하게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오세정 위원 다음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말씀인데,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3세 내지 5세까지의 누리과정 비용이 지난 6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22만 원으로 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부대의견으로 들어갔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오세정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충 단가가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지난 정부하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고, 작년에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때 부대의견을 저는, 저의 입장에서 반대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게 논란이 과거의 논란으로 악순환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단가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교육재정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한번 그렇게 지출이 되고 나면 계속 고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고 지원을 통해서 1만 원, 2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저도 사실은 이걸 완전히 지방교육재정에 맡긴다는 것보다는 국고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때가 아동의 지적능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는 게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국고로 지원이 가능하든가 하는 것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후보님의 소통능력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유은혜 후보자께서 지난 19대, 20대에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니까—공동발의, 대표발의 전부 합해서—민주당 외의 의원하고 한 것은 굉장히 소수예요. 대부분 민주당하고 하거나 아니면 정의당하고 하거나 이 정도지, 사실은 정당을 다 합쳐서 굉장히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발의 건수가 별로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자기편과의 소통능력은 우수하지만 다른 편과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이실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장관이 되시면 훨씬 더 야당이나 다른 쪽의 의견도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다섯 번의 질의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김현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받은 통계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러세요.

○김현아 위원 이게 지금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좌관 통해서 제가 조금 의심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더니 위의 세 명의 과거 역대 사회부총리 통계는 아마 국회에서 확인 가능한 의정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통계를 뽑으신 거라고 하고요, 지금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집계를 하셔서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굉장히 과거하고 차이가 나고, 이 자료는 이런 상태로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그때 의정시스템에 과거에 올라가는 기준과 똑같이 올라갔을 때 하시고, 위원님들 모두 다 이 통계는 밖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각자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났는데 정말 꼭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한두 분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무위원후보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시간입니다.

유은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유은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보신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소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교육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통해 교육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열정을 읽을 수 있었으며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가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정활동을 통해 배웠듯이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면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는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이후에 처음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은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세 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했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또 유은혜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곽상도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오세정	이군현	이찬열
전희경	조승래	홍문종	

○청가 위원(1인)

정동영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김민기 이인영 이재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채수근

○출석 공직후보자

유은혜